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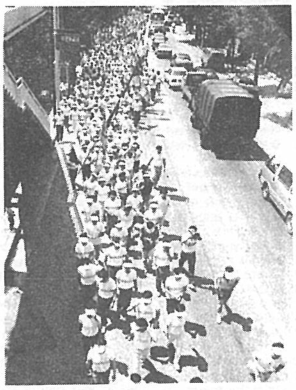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겸 주간 손주영
편집장 송훈
외대신문사 (☎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 (☎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85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규행

제493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5월 31일 (화요일)

「통일염원 외문대동제」·「왕산축전」 폐막

통일주제로 닷새간 진행, 예년보다 학생들참여 두드러져



▲「외문대동제」둘째날인 25일(수) 1천5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통일염원 뜀박질대회」의 모습.

「아버지! 갈라진 땅, 갈라진 조국은 물려받을 수 없읍니다」「어머니! 우리는 통일된 조국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치아래 진행되었던 「통일염원 외문대동제」와 「왕산축전」이 28일(토)이문·왕산 대동 놀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 캠퍼스

개막식이 24일(화) 오후5시 8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통일광장에서 길놀이를 시작으로 굿패「희망세」의 통일굿 공연및 촛불행사등의순서로 약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25일(수) 낮12시에는 「통일염원 뜀박질대회」가 열렸다. 학교를 출발한 1천5백여명의 학생들은「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광주학살 진상규명 노태우를 처단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10㎞를 달려 오후2시경 학교에 도착했다.

이에앞서 삼민광장에서 가진 집회에서 삼민광장을 통일광장으로 바꾸는 개명식이 아울러 진행되었다.

또, 이날 오후7시30분에는 「개사곡 경연대회」가 1천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2시간여동안 통일광장에서 열렸다.

26일(목) 오후4시에는 총학생회주최로 임진각방문이 있었는데 이날 8백여명의 학생들은 버스20대에 나눠 타고 오후6시 임진각에 도착,통일염원 집회를 가졌다.

용인 캠퍼스

「왕산축전」개막식이 24일(화) 오후2시 2백여명의학생이 모인 가운데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은 민주포졸발대식, 한알한마당 순으로 약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또한 오후2시30분 문리학관앞 승리마당에서는 약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리대 사물놀이패의 출범식및 마당극이 있었다.

둘째날인 25일에는 야외무대에서 오후1시30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움「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가 열렸으며,이어 오후3시 석일균 용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대회가 진행되었다.

26일(목) 세째날에는 전통혼례식이 여학생부 연합 주최로 오후1시30분 민주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네째날인 27일(금)에는 동양어문대,사회과학대학생회 주최로 통일기원제와 모의점거, 가두시위가학생회관앞에서 있었다. 이에앞서 야외무대에서는「통일염원 민중가요제」가 12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오후5시에는 불어과 마당극과 대동놀이가 열렸다.

한편, 이날 대강당에서는 여성극단「미얄」의「꽃다운 이내 청춘」이 1시간30분동안공연되었다.

마지막날인 28일열린 「이문·왕산대동제」는 오후3시부터 서울캠퍼스 통일광장에서 8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왕산·이문 개사곡 경연대회 결승전, 차전놀이, 지신밟기등의 순서로 약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행사로 통일염원 횃불제가 치뤄졌다.

CPA 1차시험 본교생 7명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박경석군(상경·경영·87년졸업)을 비롯한 본교생 7명이 합격했다.

2차시험은 7월5일(화) 6일(수) 양일간에 실시되며 2차 합격자는 9월23일(금) 발표 된다.

합격자는 다음과같다.

▲박경석 ▲배석희(상경·경영4) ▲백영현(정과·행정졸업) ▲백종남(서양·서반아어 졸업) ▲이영철(서양·영어4) ▲임석종(상경·무역졸업) ▲전승영(상경·경영4)

「외문대동제」둘째날인 5월26일(목) 8백여명의 서울캠퍼스학생과 이문동 마을주민들이 임진각을 방문했다.

대동제 행사의 일환으로 치뤄진 이번 임진각방문은 이날 학생들이 버스에 부착한 홍보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들과의 마찰로 예정시간보다 1시간늦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통일광장(구 삼민광장)을 출발했다.

오후6시 임진각에 도착한 학생·주민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글·사진:사진부>

용인고시반 무기한농성돌입

서울캠퍼스와 평등한 대우 요구

용인캠퍼스 고시반원 18명의 학생들은 5월26일(목)부터 서울캠퍼스 고시반과의 평등한 대우, 실원증원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좁은공간속에서의 학습으로 인한 학습능률 저하및 예산부족으로 파생되는 특강운영불가, 고시관계서적절대부족, 정보수집곤란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학교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은 학생수에 비례한 실원증원및 그에 따르는 고시실 확충, 목공소이전 그리고 공인회계사, 외시, 사시, 행시의 분리등을 학교측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고시원「청람제」실장을 맡고있는 최경식군(영어·4)은『예산및 시설등 여러부문에서 서울캠퍼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며『학교측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반 18명의 학생들은『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것』이라고 밝혔다.

기말고사일정 확정

서울13일, 용인 8일부터 21일까지

8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서울캠퍼스는 6월13일(월)부터 21일(화)까지, 용인캠퍼스는 6월8일(수)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양교과목은 6월13일부터 15일(수)까지 3일간, 전공및 부전공은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회화, 언어실습및 시청각교과목은 수업시간중에 실시된다.

용인캠퍼스는 교양교과목이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공및 부전공은 8일(수)~10일(금)17일(금),20일(월) 21일사이 해당수업시간이나 시험기간내에 담당교수재량에따라 치뤄진다.

한편, 답안지 성명미기재, 성적인정원서 지연제출,출석부에 성명이 등재되지 않은 학생은 성적이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시험기간중 성적인정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 교학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체적 시험일정은 6월3일(금)발표될 예정이다.

「울림」 한국영화제 개최

영화모임「울림」은 6월1일(수)부터 3일(금)까지 시청각교육원2층에서「한국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에는「울림」을 비롯한 각대학 영화써클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8개 작품이 선보인다.

상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6월1일 오후1시:어둠의 자식들, 서울축제, 오후3시:철인들,울림,오후6시:티켓, 서울축제 △2일 오후1시:바보들의 행진, 그날이 오면, 오후3시:어둠의 자식들, 서울축제, 오후6시:바보들의 행진, 인재를 위하여 △3일 오후1시:철인들, 울림, 오후3시:바보들의 행진, 인재를 위하여

서울, FBS 「제9회 가요제」

외대교육방송국(FBS)은 오는 6월2일(목) 오후5시30분 대강당에서「제9회 외대가요제」를 개최한다.

「벗이여! 하나되어 해방의 노래를…」이라는 기치아래 치뤄지는 이번 가요제에는「새물결」을 비롯한 서울지역 6개대학 노래모임이 참가하며,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초청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13대국회 개원
—지리한 광대놀음 이제는 그만
▲노동자 파업·농성잇달아
—진작 사람대접 해줬어야
▲미·소 수뇌회담 열려
—먼나라 이야기

2학기 수강신청 6월3일(금)까지

88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이 6월1일(수)부터 3일(금)까지 서울·용인 양캠퍼스 해당 학과장실에서 실시된다.

학년별 수강신청날짜는 1학년이 1일(수),2학년 2일, 3·4학년 3일이며 시간은주간이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야간이 오후6시부터 9시까지이다.

한편, 강의시간표및 수강신청카드, OMR카드는 해당 학과장실에서 배부한다.

여름학기개설

6월22일~7월9일

교무처에서는 6월22일(수)부터 7월9일(토)까지 88학년도 여름학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여름학기는 F·W또는 출미등으로 인해 재수강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희망과목을 6월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각단과대학 교학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목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점당 수강료는 3만2천원이다.

「외대 연극반」 제40회 정기공연

「외대연극반」의 제40회정기공연「안경위로 올라간 양말」이 6월2일(목)부터3일간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극은 민중시인인 가장과푸기를 일삼는 부인, 연극배우, 운동권 학생인 딸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정신병자의 풍자를 통해 현 사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번 40회 정기공연의 창작과 연출을 맡은 김가봉군(서양·화란어4)은 이에대해『선동 선전적이아닌 참여적 성격의 사실극으로 현실상황을 표현했으며 앞으로는 상황표현에 그치지않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극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연시간은 2일에 오후5시30분, 3일(금)과 4일(토)에는 오후 3시와 6시에 각각 공연된다.

서울,「농준위」발대식 가져

서울캠퍼스「농촌활동 준비위원회」(이하「농준위」)는 지난25일(수) 오후5시에 통일광장(구 삼민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농준위원장인 성연찬군(상경·경제3)은『올해 실시되는 농활은 농민들에게 조국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농민과의 생활을 통해 이땅 민중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전북부안농민 황재근 씨(부안 가톨릭농민회 총무)는『지금까지 농활이 일시적이고 의례적인 행사에 머물렀던 점을 탈피하여 항시적인 활동을 통해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를 이루어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농준위」에서는 6월10일 이전에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농활신청서는 이미 배부한 상태이고 신청 1차마감은 6월11일까지로 연기되었다.

외대학술상 원고마감일 연기

제6회「외대학술상」논문 현상모집의 원고마감일을 응모저조로 인해 오는 8월15일(금)로 연기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응모해주신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보다 많은 외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외대학보

「미국」=「빈대」라는 논리

▲『친미(親美)를 단순히 종속관계로 보면 시대착오이다.』『미국은 한국에관한 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저해요소는 아니다.』

서울대생 조성만군이 산화해 간지 며칠 후 서울의 미대사관과 광주미문화원이 대학생들에게 화염병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각 일간지들은 이를 이례(異例)적으로 심층보도 하며 젊은이들의 반미(反美)주장을 감상적이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단호히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거부의 뜻 운운중 우리의 눈길을 유난히 끌게 하는 글은『김일성체제가 있는 한, 민족적인 생존을 위해 또다른 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피한 요건이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맺어진 관계를 깨뜨리려 든다면, 이는 빈대가 밉다고 초가에 불을 지르는 꼴』이라고 밝힌 모일간지의 칼럼이다.

▲자칭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인「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교정된것은최근의「무역개방압력」등의 일련의 현상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점거·방화등의 과격한(?) 행위로 발전된것은 80년5월 광주가 그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0년5월이전「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우방이며 떨어질수없는 관계로 치부되었었다. 즉 독재자들의 배후조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과정속에서도 그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채 우리의 영원한 맹방으로 자리하고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5월광주는「미국」에대한 환상에 젖은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나를 처절히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광주와 무관하다』고 아직까지 발뺌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카터가 광주진압 후 행한 연설중『우리의 우방이나 무역상대국이 단지우리의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할 순 없다』라는 한마디에서 양의 탈을쓴 늑대의 어설픈 연극임을 알수있으며 결코「미국」이 우리의 친구가 아님을, 그리고5월광주는 몇몇 군부세력과 그들의 조정자「미국」의 묵인하에 진행되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임에 다름아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위정자들에 의해 정권연장과 억압구조강행의 제물로 도용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못할 사실이다.

헌데 현하 벌어지고 있는 정권을 잡은자들과 관제언론의 반미=용공·좌경이라는 우습지도 않은 논리는 진정 애국하는, 그리고 민족의 생존을 갈망하는 세력의 탄압을 뜻하는 것일게다.

이에 저들의 간교한 용공 좌경 조작은 자신들의 취약하고 비정통한 정권유지를 위한 또 한번의 술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때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결코 미국은 빈대가 아니며 반미(反美)가 초가에 불을 지르는 행위가 더더욱 아님을 굳게 명심하자.

<이근기>

제8회 전국 대학생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
(영어·불어·독어)

1. 참가자격
①전국4년제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소속대학(교)총(학)장의 추천은받은 자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인정함
②1년이상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하는 나라에서 체류하였거나, 또는 해당외국어를 상용하는 학교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함
③본 경시대회에서 수상경력이있는 응시자가 과거와 동일한 상 또는 하위급의 상을 받게될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함
2. 참가 신청 요령
①구비서류:참가신청서 및 총(학)장 추천서1통(소정양식), 경시대회참가표1통(소정양식), 사진2매(반명함판)
②제출처: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학과
주소:130-79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화:965-7001(교) 2083, (직통) 965-7047
③접수기간:1988년6월10일(금)~6월17일(금) 오후5시
3. 과목 및 내용
①경시과목:영어, 불어, 독어(택1)
②경시내용:수필—창의력, 표현력의 측정평가
번역—외국어의 국문번역, 국문의 외국어번역능력 측정평가
회화—외국어청취력, 구사력의 측정평가
③배점비율:수필—30% 번역—30%
회화—40%(청취력—20%, 구사력—20%)
4. 일시 및 장소:1988년6월23일(목) 오전9시—오후5시 본대학교
5. 입상자 발표 및 시상
①심사발표:(가)일시:1988년6월28일(화) 14시 본교게시판
<※해당 대학으로 개별통지>
②시상내용:최우수상 1명(각과목별):문교부장관상장및 부상1,000,000원
우수상 3명(〃):본대학교총장 상장및 부상500,000원
장려상 8명(〃): 〃 〃 200,000원
③시상일시:1988년7월1일(금) 오전12시
6. 특별 부상
①과목별 최우수자 각 1명에게는 문교부 주관의 국비 단기해외연수 선발의 우선권을 부여함
기간:동·하계 방학중 11일내외
연수국:동남아 또는 미주지역
②과목별 우수자3인중 수석우수자 각1명에게는 대한항공(KAL) 외국제여객기 왕복탑승권을 특별부상으로 수여함(영어—뉴욕, 불어—파리, 독어—프랑크푸르트)

주최:한국외국어대학교
후원:문교부
협찬:대한항공(KAL)

1988학년도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대학원 (직)962-7117 (교)965-7001 구내2104
1. 모집학과
가. 석사학위과정:영어과·불어과·중국어과·독일어과·노어과·서반아어과·일본어과·아랍어과·이태리어과·힌디과·국어국문학과·마·인어과·포루투갈어과·태국어과·언어학과·철학과·사학과·아주지역연구학과·중남미지역연구학과·중동지역연구학과·동구지역연구학과·서구지역연구학과·아프리카지역연구학과·북미지역학연구과·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법학과·신문방송학과·무역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
나. 박사학위과정:영어과·불어과·중국어과·독일어과·서반아어과·일본어과·아랍어과·노어과·국어국문학과·철학과·국제관계연구학과·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법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물리학과·화학과
2. 시험과목=석사학위과정:⑴전공과목 ⑵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⑶구술시험
박사학위과정 ⑴전공과목 ⑵영어 ⑶제2외국어 ⑷구술시험
3. 원서교부및접수=1988년5월30일(월)~6월15일(수)
4. 시험일시=1988년6월22일(수) 오전10시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자는 학부 각과의 조교로 채용및 연구보조금을 지급함

무역대학원(야간) (직)962-7118 (교)965-7001 구내2109
1. 모집인원=석사학위과정 각학과 ○○명 연구과정○○명
2. 모집학과=(가)경영학석사…무역학과·국제경영학과·해운경영학과·전산개발학과·보험경영학과
(나)경제학석사…국제경제학과·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가)석사과정…⑴논문 ⑵외국어(19개어중택) ⑶면접
(나)연구과정…⑴서류전형 ⑵면접
4. 원서교부및접수=1988년6월1일(수)~6월20일(월)
5. 시험일시=1988년6월25일(토) 오후2시
※비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지급.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무사시험에 특전있음.
※실무경험이 다년간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분을 우대함.
※본 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야간) (직)963-6881 (교)965-7001 구내2116
1. 모집과정=석사학위과정 ○○명
2. 모집전공분야=국어교육·영어교육·불어교육·독어교육·서반아어교육·일본어교육·철학교육·윤리교육·역사교육·학교상담·교육행정·상업교육·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①필답시험(전공) ②면접
4. 지원서교부및접수=1988년6월1일(수)~6월20일(월)
5. 시험일시=1988년6월25일(토) 오후2시
※현직교사는 수업료의 40%를 학비감면함 ※재학중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위치=휘경전철역전(130-791 서울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설

13대 국회개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정치상과 의정상을 기대한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13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면 일사천리 통과할 수 있었던 국정이 앞으로는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의회기능이 강화되어 행정부의 독주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터이고, 각 부처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국민앞에 하기위해 노심초사할 것이 예상되니, 한결 이번 국회에 거는 민주화의 기대가 클 수 밖에없다.

그러나 개원국회가 끝나자마자 여야간 대립은 첨예화될 것이 틀림없다. 구속자 석방문제, 반 민주법 개폐문제, 광주항쟁, 제5공화국 비리문제등 13대 국회가 필연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되어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국회는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비리조사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하겠다. 최근 노대통령은 공직자 비리는 공적(公敵)으로 간주한다고 천명하였는데 현 정권은 이 문제를 선명하게 처리함으로써만이 정의사회 구현뿐만 아니라 제5공화국 체제에 연루된 미묘한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고 소신있는 「정의정치」를 펼 수 있을 것이다. 「광주항쟁진상재조사문제」는 이 보다 더 큰 쟁점이 될 안건이다. 그리고 이문제를 풀 곳이 국회밖에 없다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를 민화위 차원의 미봉책이나, 우회하여 풀어보려는 정부측 시도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민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런고로 비록 진상이 백일하에 들어나 군 내부의 고급지휘관들이나 현 6공화국의 권력중심층인 인물에게 책임문제가 추궁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국민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 노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화합적 차원이란 진정한 용서와 화해속에서 이루어져야 이상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진상이 들어나야만 하고 이에대한 솔직한 사실시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속자 석방문제, 인권문제, 한미통상문제등 여야간 거론되어야만 할 의제들이 수두룩하지만 특히 이 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이 진정한 민주화의 거보를 내딛게 할 초석이 될 것이다.

야권 3당은 민주정당·정책정당을 표명해 왔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3김(金)의 사당적·가부장적 권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여 지금까지는 시원스런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지 못하였던게 사실이다. 과거 어느때 보다 야당은 단합된 정치력을 국회에서 보여줄 때다. 야당이 뭉치면 국권이 여당 행정부와 야당 입법부로 대립하는 양상이 되니, 여야는 정쟁을 전쟁인 것처럼 착각하던 악습을 청산하고 국정운영에 경쟁적으로 견제·타협하여야 13대 국회는 화합된 의회민주정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99명 새의원들에게 큰정치, 대도를 걷겠다는 공약보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당부하고 싶다. 13대국회에서는 한판 멋진 정치가 펼쳐지는 과연 다른 면모의 정치상과 의정상을 우리는 기대한다.

코뿔소 세상

▲20세기초, 프랑스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어느날 코뿔소 한마리가 들어온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마을에는 코뿔소가 늘어나는데 알고보니 코뿔소는 마을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람의 탈을 버리고 코뿔소로 변한 것이었다. 얼마후, 사람들은 마침내 마을에 희한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전염병은 괴이하게도 사람이 코뿔소로 변해 버리는 것이었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스스로 전염병에 걸리지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코뿔소의 숫자가 마을사람의 숫자를 능가하게 되자 사람들은 「외눈박이 세상에서 눈을 둘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등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람의 탈을 버리고 코뿔소가 된다. 참으로 이상하게 모두들 사람으로 남아 있기 보다도 코뿔소가 되기를 더 즐겨한다.

▲나찌치하에서 인간성 상실의 현장을 목도했던 한 프랑스 작가의 단편소설내용이다.

타인의 인권을 쉽게 짓밟아 버리고 인간본연의 권리·자유·개성등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인간들의 외모를 흉칙한 코뿔소로 비유한 이 작품을 통해 지금 이땅에 얼마만큼의 「코뿔소」가 존재하는지 묻게된다.

6백만 유태인의 생명을 앗아간 나찌즘이 그랬듯, 목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후의 양심을 포기하는 모든이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코뿔소로 표현 가능할 것이다.

▲정치권력을 개인의 독점물로 장악하고, 없는자들을 더 없는자로 만들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나, 인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의사가 돈 없는 이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법앞의 평등을 주장하던 법관 후보생이 한자리 하고 나면 안면을 바꾸는 것등은 현재 이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코뿔소들 중의 한 유형일 뿐이다.

코뿔소들은 자기 양심에 대해 큰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자들의 위에 군림하여 큰소리를 치며 살아 간다.

▲이미 많은 코뿔소가 이 사회에 전염병을 옮기고 있다.

지금의 우리는 그 희귀한 병세만큼이나 스스로가 전염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코뿔소들이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모르는 흉측하게 생긴 동물로서, 웅웅거리는 소리와 시종 이성이 없는 거친 움직임으로 우리를 위협할때, 우리는 단연코 끝내 사람으로 남기위한 몸부림을 경주해야한다는것이다. <안>

원화절상 압력과 한국경제의 모순

Ⅰ. 들어가는 말

한미간의 통상무역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과거의 시장개방압력과 더불어 원화절상압력을 새로이 가중시키고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는 올해들어 지난 5월 21일자로 달러당 745.32원을 기록함으로써 그 절상폭이 올해들어 7.88%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3월에 열린 정부와 IMF협의단의 회의에서 IMF는 우리의 실질경제성장률을 10%로 책정하고 국제수지흑자를 1백억달러 이상 달성할것 이라고 전망했으며 미국측은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원화절상을 15%(673원45전)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원화절상압력으로 인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이 한계상황에 도달하는 등 우리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다.

또한 엔화, 마르크화, 프랑화 등 주요국 통화의 동반절상과 홍콩, 대만, 싱가폴 등 NICS국가들과 중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되므로 이제 우리상품은 세계각국에서 수출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원화절상으로 인해 흑자기조가 무너지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경제현안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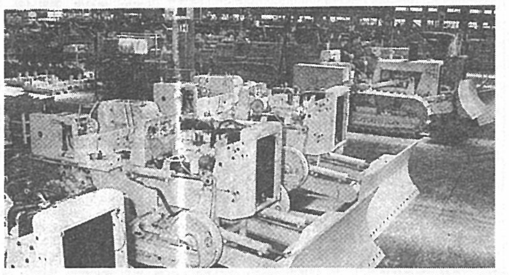
따라서 본 논의는 원화절상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원화절상 폭에 대한 전망과 영향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원화절상의 배경과 그 모순점

경제개발정책의 시험을 기점으로 줄곧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향해 오던 우리 경제는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국에서 1986년 4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작년엔 76억5천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85년 1,164억달러, 86년 1,414억달러, 87년에 1,538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의 타개책을 대외통상압력에서 찾고있다.

원화절상압력 증가의 주요원인들은 우선 최근 2년간의 우리나라의 흑자수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 흑자수출은 국제경제여건의 호기(3저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한 대미흑자의 급격한 증대와 수출입국의 대미·대일 편중도의 심화, 우리경제의 구조적불균형과 흑자관리능력의 부족, 특히 미국의 압력을 제거시킬 몇몇 대미무역흑자를 줄이는 흑자관리부족과 경제성장과 흑자의 과대선전등에 기인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요인만이 그원인이 아님을 알수있는데 미국의 원화절상압력의 모순점은 다음과같이 설명될수있다.

73년부터 IMF체제에 의한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뀌면서 (중국은 고정환율제) 환율이 무역에 있어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환율을 보지않고 수지불균형과 관련하여 환율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동환율제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기본적으로 주요국 통화가치에 따르는 「통화바스킷」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올들어 달러화가 강세를보이고 엔화가한국을 제외한 NICS의국제통화가 약세나마 절하될 것을 감안한다면 대미환율도 경제외적 논리에 의존한다고 볼수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압력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흑자관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미국채권시장의 일본점유율등을 감안한 미국이 대일압력을 약화함으로써, 자연히 약소국측인 NICS 특히 한국에 대한 압력을 증가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 또한 실재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의 요인은 미국내 산업들의 생산성저하와 다국적 기업의 기업경영전략, 그리고 연간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와 미국민의 소비성향의 지속적인 증대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수지적자에 대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정치는 무역및 환율정책에 있다는 인식하에서 시장개방압력과 더불어 환율인상의요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무역상대국의 원화절상으로 자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게 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오겠다는 이론바 「J 커브효과」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감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미국기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환율절상요구가 더욱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달러화 약세로 미국의 5백개 제조업체들의 매출총액이 87년에 9%, 순이익 41%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음을 보더라도 환율이 미국 수지적자의 주요인이 아님을 알수 있다. 또한 그들의 국제수지적자의 다급한 실정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무역에서 흑자를 구가할 때도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3백5십억달러 수준의 채무국임을 인식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다소 감정적인 섭섭함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제의 논리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작용하므로 우의란 결코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화절상압력은 미국경제의 제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 가중될 것이고 원화절상의 배경으로 보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소극적인 대처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할것이다.

원화절상 압력은 미국 무역수지적자의 개선 위한 경제외적 논리에 근거한다

국제 질서속,한국경제의 타율지배막는 근본책 필요

Ⅲ. 원화절상의 영향과 적정 절상폭

현재 한미 무역의 현상은 시장개방의 압력과 원화절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 있다.

무역시장의 개방과 지적소유권등의 미시경제적 문제는 해당기업과 연관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환율의 절상은 수출업에 관계되는 전 산업에 걸쳐 즉각적으로 채산성악화등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GNP대 수출비율이 85년 37.7%에서 86년 42.5%, 87년에는 46.1%로 증가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환율의 절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88년 3월중 수출물가 지수(1985=100)는 115.8로서 87년말에 비하여 4.5%상승하였으며 이것의 원인은 일부품목의 경우 공급의 감소와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 특히 수출주력상품인 섬유, 전기, 전자제품은 원화절상의 영향 때문이다. 현재 이들 업종의 경우 원화의 가치가 7백20원대가 되면 완전히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난 4월8일 상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4월5일까지 신용장내도액이 86년이래 처음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에 비한다면 11.6%가 감소했는데 이를 보더라도 원화절상의 심각한 영향을 잘 알수 있다. 또한 수입유발성 경제구조로 인하여 엔화강세에 따른 수입물가지수의 상승(88년3월, 전년말대비 4.2%증가)도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인 영향외에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입가격부담감소와 수출입시장의 변화의 경영전략을 채택하기 용이하나 중소수출업체는 이에 쉽게 대처할능력이 없으며 대기업의 수입부담감소분을 나눠갖지 못하고 수출원가 상승의 부담만 안게되어 있다. 또한 원화절상폭 만큼의 수출품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수입물품을 취급하는 대기업의 이익은 증대되나 수입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없어 국민경제 분배의측면에서도 왜곡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원화절상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화절상이 국내 경제여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면에서 심각하기는 하나 일면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소비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들은 수입재의 가격하락으로 생산원가가 감소될 뿐만아니라 외채상환에 따르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도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적으로 환율은 그나라의 물가를 주요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해야 한다는 측면을 무시하고 환율이 무역마찰을 해소하는수단으로 급격히 절상된다는데 있다.

즉 원화절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면보다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또한 86년과 87년의 엔화, 마르크화, NY(대만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는 해소 되지 않았고 그 원인이 앞에서 밝힌바와같이 미국내부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논리에 맞지않는 원화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원화절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부정적요소임을 알수있다. 이와같이 원화절상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을 주지할때 우리는 먼저 적정환율인상폭을 계산한 다음 대응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적정선은 우리나라의 현 흑자를 어느 선에서 유지시킬 것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현재 흑자구조가 정착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원화의 저평가(85년부터 87년까지의 엔화는70%이상, NY달러는 36%인상에 비해 원화는 11·2%인상)에 의한 흑자분과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소위 3저효과)분을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물가인상의 차이—우리물가 상승율이 선진제국보다 1%높다면 원화는 자동적으로 1%평가절상—가 고려되어야 한다. (88년3월 소비자물가지수(1985=100)는 112·5로 전년말대비 3·6%인상되었고 선진국의 경우보다 2~3%높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구조의 정착문제는 그 정도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난 몇년간의 추세와 산업구조의 개편(특히 일본과의 개편)을 감안한다면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고 적정흑자폭을 살펴보자.

우리나라흑자의 적정폭은 작년도 경상수지흑자가 약 98억달러인데 그중 제외해야할 흑자인 3저현상에 의한 흑자(3고현상이 있을 수 있음으로) 20~30억달러와 350억달러에달하는 외채의 상환을 위한 외채상환원리금 30억달러 정도를 더한 50~60억 달러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우리의 대미 달러 환율은 740~720 원대로, 원화절상의 가능율은 6~8%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물론 올림픽등으로 인한 무역외적 수지흑자(87년 약9억5천달러)가 증대되어 흑자폭이 늘어날수 있으나 720원대가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도산이 예상되는 만큼 물가안정과 고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미환율협상에 전력을 다하여 원화가 720원이하로 절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본바와같이 원화절상압력은 미국적자증가에 기인하며 원화절상 자체가 미국적자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없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원화절상압력은 가중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원화절상압력에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의 경우 내수산업 발굴에 대한 노력과 기술개발 수출입선의 다변화, 그리고 원화절상의 영향이 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부담을 나눠가지는 기업 윤리성의 정착에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대미흑자폭을 줄여가며 산업구조의 조정 즉, 고(高)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과 장기자본 수지의 적자(87년 58억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대와 선물환(先物換) 시장의 육성으로 환율에 대한 시장감각을 익혀 나가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일관성있고 장기적인환율정책으로 기업이 환율변동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장기적인 것으로 현재 벼랑에선 한국경제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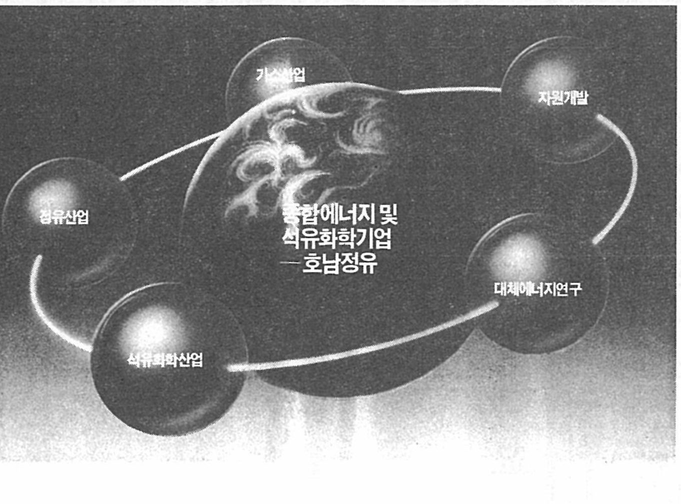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이상의 환율절상압력은 미국의 적자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아니라 한국내 전산업이 채산성 악화로 도산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민의 반미의식만 고조시킬뿐결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폭을 줄여나가는 정부의 노력으로원화절상의 압력을 둔화시킨 다음 국제경제 질서속에서 한국경제가 타율적으로 지배되지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황 완 성
<대학원·경영 3학기>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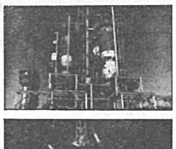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가 맡겠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해
국내 석유공급체계의 순수 민간판매시대를
개막한 호남정유—
이제 호남정유는 20여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 석유화학,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부문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을 목표로
힘찬 항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도전과 의지로써 이룩하려는 호남정유의
미래상—
호남정유는 도전으로 미래를 성취하려는
내일의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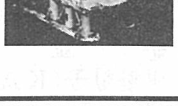


■ 정유산업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온 호남정유는 일일 38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입니다.

■ 가스산업
호남정유는 무공해연료인 가스의 확대보급을 위해 1984년 여수에너지(주)를 설립하여 엘피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읍니다.



■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는 이미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BTX 공장을 비롯한 최신의 각종 석유화학공장도 설립할 것입니다.



■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호남정유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호남정유주식회사

민족해방 그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8>

대중 의식화론

강력한 주체역량 준비방도로서의 대중의식화

민족자주의식의 무장은 민해운 승리의 전제

의식화는 대중의 의식수준, 정서에 조응해야

최 경 수
〈서울대 대학원 졸업·정치학〉

Ⅰ. 서

사회변혁운동에서 「의식화」의 중요성은 사회변혁운동의 본질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 모순에 대한 인식, 투쟁의지없이는 민중이 운동에 떨쳐 일어설수 없기 때문에 사회변혁운동에서 민중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수 있으며 모든 대중 운동에서는 반드시 사상사업, 정치사업으로서의 의식화가 선행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대중의식화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은 또한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주객관적 요구때문이기도 하다. 현대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지배는 군사적,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뿐만 아니라 피지배 식민지 민중의 사상의식 자체의 노예화를 주요한 전술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의식화 사업의 기본원칙, 형식과 방법, 중심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체계적인 정리가 보편화되어 있기때문에(가장 대표적인 글이라할 수 있는 것은 『성균』40집「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언」이다)이 글에서는 의식화 내용들 간의 올바른 결합방식, 의식화 사업에서 현재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집중해서 논하고자한다. 의식화 방도를 실천에 올바로 구현함에 있어서는 현시기 중심투쟁이라 할 수 있는 조국 통일운동의 의식화 영역에서 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했다.

Ⅱ. 현시기 의식화의 중심내용과 결합방식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현단계에 있어서 의식화의 주요 내용은 크게 민족자주의식과 노동계급의식두가지라 할 수있다. 민족자주의식은 다시 ①민족적자각② 민족적 긍지, 민족역량에의 신뢰 ③반미자주의식 ④민족단결의식=통일의식으로 세분화될수 있으며, 노동계급의식은 단지 노동자계급에게만 요구되는 의식이 아니라 구지배계급이었던 봉건계급의 봉건적 사상의식의 잔재, 또 경제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경제적 강제와 사상의식의 주입으로 다수 노동자계급을영구히 지배하고자 하는 자본가 계급의 의식들에 대항하여, 피억압 민중일반이 무장되어야 할 사회변혁의식을 가리킨다.

두가지 의식화 내용 모두 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것도 결국 인간자신이다』라고 하는 각성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사상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채워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중심내용을 대중의식화 사업에서 성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의식화 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한다. 이 말은 곧 모든 의식화 사업이 반드시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변혁사상의 보급, 전파, 변혁이론의 정립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을 철저히 견지하지 않으면 유래없이 장기적이며 복잡하고도 어려운한국 사회변혁운동을 제대로발전추동해낼수가 없다. 대중 의식화 사업이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완결성, 정합성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봉사하지는 않았는가를 냉정히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의식화 내용에 있어서 뿐아니라 형식과 방법, 문풍(文風) 등 모든 분야에서도 가장 주체적으로, 즉 가장 민족적정서에 부합하는 형태로 추진시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 민족자주의식의 전면적 고양과 개화를 가로막고있는 가장큰 질곡은 다름 아닌 반공=반북 의식이다. 민해운 세력의 불철저함에서 오는 사상적동요나 소극적 실천은 이런 대중의식 상태를 더욱 조장, 강화시킬 뿐이다. 『어렵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이곳에서부터 풀어야 하고, 풀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북한 실상 알리기, 반통일적인 통일정책이나 통일론에 대한 비판, 민족화해와 교류, 대단결의 촉구등 다양한 투쟁을 힘있게 해나갈때 이것의 일각이라도 허물어뜨릴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세의존의식, 사대의식 나아가 친미·숭미의식의 극복, 청산이 민족자주의식 고양의 첩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정치의식, 사회의식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질적, 퇴폐적이며 개인주의적 실용주의적인 미국문화와 미국식 가치관이 생활깊숙히 스며들어있다는데 더욱문제가있다. 그러므로 양키문화, 미국적배금주의문화를 생활에서부터 척결해내는 문화투쟁이 폭넓게 또 힘있게 펼쳐져야할것이다.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 이 두가지 내용은 어떻게 결합되어야하는가? 현단계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인 것과 같이 의식화사업에 있어서도 기본축은 민족자주의식을 성장·강화시키는것이다.

이것은 계급의식화를 경시하거나 혹은 계급의식화와 대립·모순되는것은 아니다. 혹자는 아직까지도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그만큼 계급의식을 희석화, 약화시킨다고 산술적으로 평면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계급, 계층의 특성에 따라 의식화가 계급의식화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사회현실속에서 민족자주의식 없는계급의식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올바로 해결해낼수없다. 또한 계급의식화도 초보적인 민족자주의식화 (최소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무력화) 없이는 성과적으로 진전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Ⅲ. 의식화의 올바른 방도

1. 의식화의 주체는 대중 자신이다

의식화 사업에서 가장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의식화 사업이 대중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의식화의 주체가 다른 무엇이 아닌 대중자신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원칙이다. 변혁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대중과 지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방식의 하나가 바로 의식화이며, 의식화 사업에서 대중노선을 철저히 견지해야만 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대중 자신이 의식화 사업의(피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며,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여져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이하 기술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본 정신이며 핵심 열쇠인 것이다.

의식화의 주체는 대중 자신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실천적 함축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현시기에 특히 중요한 점 (잘 실천되고 있지못한 점) 두가지 정도를 지적하겠다. 첫째, 모든 대중들에 대한 의식화 사업을 현재의 핵심, 선각자들에 의해서만 직접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큰 성과를 거두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수천수만대중을 어떻게 몇몇 선각자들이 직접 의식화해낼수 있겠는가? 낮은 수준으로라도 대중 자신이 의식화된 내용을 다른 이에게 설득, 전파하는식으로될때, 곧 하나가 열을, 열이 백을 의식화해나가는 방식으로만 의식화사업이 가속도와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의식화된 내용을 자기안에만 그대로 하나씩 쌓아두는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타인을 또다시 의식화하는 사업에 나설때만, 즉 의식화—실천 (의식화, 조직화, 투쟁…) 이 정확히 결합될 때에만 의식화도 제대로 되었다고 할수 있다. 대중 자신을 유력한 선전대, 선동대로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둘째, 의식화의 가장 높은 형태중의 하나인 (의식화 사업 전체가 사상투쟁이라고도볼 수 있음) 사상투쟁 (낡은 사상을 철폐, 극복하고 올바른 사상을 세우는 투쟁) 도 대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사상투쟁은 소위 「활동가」만이 전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상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것은 물론 대학가의 「대자보논쟁」들 처럼 사변적인 관념논쟁으로 대중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라는말은 아니다. 어떤 사상이 해악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상을 뿌리뽑고 건전한 사상을 확산시키는것은 운동권내에서의 말꼬리잡기식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힘, 즉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변혁운동에서 가장 해악적인사상은 「분열주의사상」이라고할때 그것을 극복하고 단결의 사상을 세우는것은 분열의폐해로인해 누구보다도 고통받으며, 단결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며, 실제 압제자에 대항하기위해 단결할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단결투쟁밖에 가능하지않다.

그러므로 운동권에 단결을호소하기에 앞서 실제 대중투쟁의 장에서 단결의 구심이 되며 대중 투쟁속에서 단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반공의식의 극복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중의 의식수준에 맞게 의식화사업이 출발은 해야 겠지만, 지속적인 선전·선동에 의해서만은 결코 그 의식이 의미있는 정도로 와해될수 없다. 반공의식을 강요하는 대립물과의 치열한 대중투쟁속에서 그 의식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될 것이며, 철옹성같이 굳어만 보이던 분단의식도 깨어져나갈수 있는 것이다.

2. 의식화에서의 대중노선 구현의 방식

1) 대중의 의식수준, 정서에 조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의식화에서의 대중노선 또한 대중의 「실정에 맞게」하는 것으로서 구현될수 있다. 의식화의 대상이 되는 계급, 계층의 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고 지방별, 개체 대상별 (성별, 연령별…) 특성 또한 중요하다. 이렇듯 대중의 기본 처지가 다양하고 거기에 따라 의식수준, 정서상태도 천차만별이므로 의식화의 내용, 방식도 매우 다양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도 변혁운동의 대중의식화 사업은 그 내용의 획일성, 형식의 단조로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중의 의식수준, 생활정서를 파악할 때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함과 마찬가지로 현상적 파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와 같이 말조심 해야하는 억압적 분위기하의 사회에서는 대중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뿐만아니라 말하지 않거나 작은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주목하고 예리하게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못하고 현상적인 파악, 분석에만 그친다면 대중추수주의로의 전락을 피할수 없게된다. 개별적인 의식화작업의 대상파악에 있어서, 특히 단기간의 접촉, 파악일때는 계급적 속성을 기본으로 보는것이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장해준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기본적인 한계와 가능성, 의식화작업이 진행될에 따라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난관, 일차적인 관심과 지향등이 이것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대중의 의식수준, 정서에 맞게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것은 물론 「내용」이나, 기술·형식적 측면도 중요하다. 특히 이제까지 의식화 작업이 주로 글에만 의존했다면, 직접적인 「말」에 의한 것, 문화, 예술 (음악, 미술, 연극…등) 적 다양한 양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합법적, 반합법적, 비합법적 성격에 따른 다른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2) 의식화의 발전단계 문제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

모든 의식화 사업은 최종적인 지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이 다 실현될 수는 없다.

인간의 의식은 순차적인단계를 밟으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과정이 압축될 수는 있어도 비약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또한 의식화의 수준을 계속 높이는 것이야말로 변혁운동에서의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실제적 담보로 된다. 의식화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더 많은 지식을 갖게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의식화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의 제반모순과 억압을 인식하는 각성, 자각의 단계에서 투쟁의지가 생기고, 투쟁각오가 점점 드높아져 변혁운동에 투신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투쟁방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풍부하게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지도를 받음과 동시에 대중을 지도 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이다.

대중의 의식화에서는 첫째단계에서 둘째단계, 즉 반드시 직접적인 실천투쟁으로 불러일으키고, 실천의 수준, 투쟁의 결의를 점점 높이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선진적 대중들에게는 투쟁방도를 스스로 옳게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의식적인 의식화 (주로 조직대중에 대한 교양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이 수준높게 이루어져 대중속에서 핵심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내야만 하는것이다.

3. 의식화—투쟁—조직화의 상호관계

의식화는 모든 대중활동의 첫공정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협의의 의식화사업만으로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고, 의식화 그 자체가 최종 목적도 아니다. 의식화 사업은 투쟁과 결부되어야만 하고 조직화로 반드시 귀결되어야만한다. 그럴때에만 의식화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제 투쟁—의식화—조직화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대중들은 투쟁속에서 가장 대규모적으로 의식화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의식화 내용을 체득하게 된다.

물론 선차적인 의식화가 있어야만 투쟁에 나서게 되지만, 그러한 계기에 의해 촉발된 대중투쟁속에서 대중은 가장 격렬하게 의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험」의 중요성은 원론에서, 또다른 나라의 변혁운동의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고, 가깝게는 대중적으로 패배의식의 초보적 단계를 나갈수 있게 해주었던 87년6월 민주화대투쟁이나, 노동계급의 힘과 단결투쟁의 위력에 대해 천만 노동대중을 각성시켰던 7, 8월 노동자투쟁의 위력에서 이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렇듯 투쟁과정중에서의 의식화가 중요하므로 주된 투쟁구호는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고려속에 가장 정확하며 가장 감동적이며, 호소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되어야만 한다.

주장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구호, 대중에게 공분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구호가 아니라 쉽고 분명하면서도 정서적인 공감, 전투성을 가질 수 있는구호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의식화는 조직화 사업의 전제, 선결 요건이며, 반드시 조직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정형이라 해도 내용적으로) 라는성과를 낳아야 한다. 낮은 수준으로라도 조직화되어있을 때 의식화의 효과는 대단히 높아지며, 조직 구성원의 의식수준, 그에 따른 실천수준의 발전이야말로 조직의 질 발전에 다름 아니라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4. 선전—선동의 차이, 올바른 수행 방식

의식화는 어떤 지식이나 논리를 습득하는것이 아니라 낡은 잘못된 사상의식과 투쟁이 기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강의식, 주입식으로 의식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없음은 잘알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은 백지상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지배계급에 의해 철저히 계획되고 집요하게 주입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세뇌되어 있기때문에, 의식화, 특히 초기단계의 의식화는 이 허위의식과의 대결에서 출발할 수 박에 없으며, 여기에서 선동의 중요성이 그토록 강조되는 것이다.

선동과 선전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명이 있어왔으나 핵심적인 것은 선전이 어떤 논리체계를 설명, 이해, 신념화시키는 것이라면 선동은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대중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의식에 강한충격을 주면서 투쟁을 호소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생생한 폭로」야말로 선동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백지에 가득 무엇인가를 써 넣어가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덮개 (지배 이데올로기) 로 가리워져 있는 현실을, 덮개를 벗기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 주가되는 것이고, 진위,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은 일차적으로는 대중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선동자가 대상에게 강요할수 있는것도 아니며, 강요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해서는 결코 효과적인 선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쉽고 명쾌하면서도 풍부한(양적으로 잡다한 사실들을 나열하는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내용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 폭로라는 점에서 풍부하다는 말이다. 즉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은「광주」혹은「살인고문」등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모든 선전·선동에서 그것만을 반복해서 폭로의 재료로 사용한다면 대중은 식상하고만다. 보다 최근의, 새로운 사실들을 수집, 폭로해야 할것이다)내용이 담긴 선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가지 선동에서 중요한 것은 선동자가 철저히 민중의 입장에 서야한다는 것이다. 관념적으로 민중의 이익을 옹호,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민중의 아픔을 자기아픔으로 느끼며 마치 친혈육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듯이, 친혈육을 설득하듯이 선동해야 하고, 선동내용에 대해 자신이 먼저 선동되어 있어야만 한다.

선전·선동을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높이 확실히 발전시키려면 전문적인 선전·선동의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Ⅳ. 결

이글 또한 의식화방도에대해서는 또다시원칙론만을 나열한 것에 그쳤다는 미흡함이크다. 실천 주체에게 있어서는 백번의 실천이 그 원칙들을 몸으로 체득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귀중한 재보로 작용할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가야 하는 현시기에 있어서 선전·선동의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선전에 있어서는 ①보다 쉬운말 ②풍부한 예를들며 ③대비의 효과를 잘살리는 것 (분단현실의 고통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상 내비, 단독올림픽의 치명적 결과와 공동올림픽의 가슴벅찬 결과등) 이 중요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선동에 있어서는 빈번해지는 가두시위, 집회에서 전문적으로 선동을 수행한선동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대중선동 뿐아니라 간접적인 여론형성 (소문 퍼뜨리기, 소위「유비통신」) 의 방식도 보다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구사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실천이나 투쟁이 있었기때문에 「이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저것이 더 효과적인가」하는 고민이 자칫 관념적인 것이 될 우려도많다.

대중의 생활 깊숙히 파고들어있는 분단의식을 극복하고 통일의식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선전·선동의 내용과 그것을 이루어낼 다양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하고 시행착오들을 수정해 내는 것이 절실히요구된다.

글실는 차례

1. 현대와 변혁이념<상·하>
2. 세계변혁과 민족해방운동
3. 현대제국주의와 한국사회
4. 민족해방운동의 성격과 임무
5. 민족해방운동의 대상과 동력
6.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체계
7. 대중의식화론
8. 대중조직화론
9. 민족해방운동 발전사
10. 민족해방운동의 이행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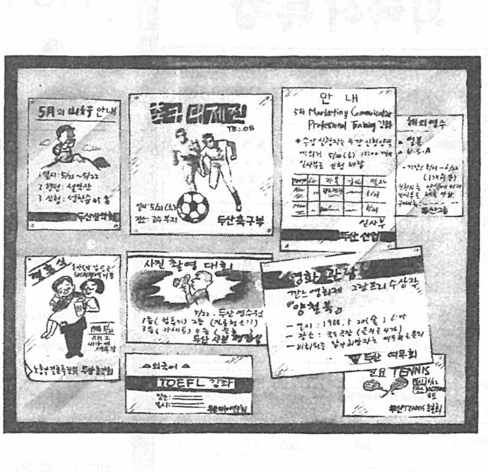
알 림

본기획물「민족해방…」의 연재순서중 이번호 (493호) 에 게재될 예정이던 「민족해방운동발전사」는 필자사정으로 인해 495호에 실리게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술부>

두산그룹에서 즐겁게 일합니다②

5월21일
사내 게시판은
오늘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두산그룹은 개인의 취미와 여유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즐거운 일터입니다.

두산그룹의 사내 게시판은 언제나 만원사례.
센스있고 위트있는 제목으로 회원을 부르는
사내 써클 안내문, 토요일 오후의 보울링대회,
테니스대회, 일요일의 등산모임, 또 누구 누구가
총각, 처녀 결별선언을 한다는 등의
문구들이 나붙습니다.

두산은 각종 사내 써클활동, 가족동반 체육대회,
어린이날 행사, OB베어스 회원운영, 자녀들 사생대회,
그리고 정기 신체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사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취미생활과 복지를 위해
최대한의 보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즐거운 일터입니다.

학창시절 만큼이나 낭만이 살아있는 직장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젊은 패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의욕이 성취의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읍니다.
오늘도 빽빽히 채워진 두산그룹의 사내 게시판은
두산인의 얼굴이자 마음입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斗山그룹

●두산산업 ●동양맥주 ●동산토건 ●두산식품 ●두산기계 ●두산유리 ●두산농산 ●오리콤 ●두산컴퓨터 ●두산유업 ●두산전자 ●두산곡산 ●두산제관 ●오비씨그램 ●동아출판사 ●백화양조·베리나인 ●오비베어스 ●연강학술재단

여학생의 자치기구, 총여학생회 필요

여학생의사 수렴및 집행통로부재는 여학생부의 한계

외대 4천 여학우, 적극적 참여로 총여건설해야

평등의 소리
한양여성
자주고름
잉태
貞靜軒
5

▲학원내에 존재하는 여성학도들의 비자율적인 모습의 극복과 주체적 여성상의 정립이 과제이다.

『오늘,

우리 여성학도는 한자리에 모였읍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정액받이로 끌려갔던 조선처녀들의 통곡소리를 들으며, 70년대말 개처럼 얻어맞고 똥물을 뒤집어쓰며 민주노조를 지켰던 여성노동자들, 신민당사농성중 경찰에 떠밀려 떨어진 김경숙 노동자의 한맺힌 절규를 들으며, 떨리는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내부에는 이중·삼중으로 식민지사회의 모순을 짊어진 채 고통받고있는 기층여성의 삶에 비해, 「선택받았음」에 만족하는 안일함으로인하여 여성문제를 「선택받지못한자」의 개인적 능력문제로 치부하고 오인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극복하는데에서부터 우리운동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운동이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하는 조직적인 인간의 움직임이라 할때, 여학생운동역시 자기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모순을 극복할수 있을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이화여대에서 발족한 「서울지역여학생대표자협의회 (이하 여대협)」의 발족선언문중 일부이다.

아직도 단위캠퍼스 에서조차 여학생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역여학생들의 이해에 기반하여 만든 「여대협」의 위상에 대하여, 의장인 유송화양 (이화여대)은『학원내에 존재하는 여성학도들의 비자율적인 모습의 극복과 주체적인 여성상의 정립이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각 학교의 여학생조직을 건설·강화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다. 이는 대다수의 학교가 여학생조직이 꾸려져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평등한 취업조건에대한 공동대처나 성고문투쟁등 고립분산적 활동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남녀공학대에서 여학생자치기구로써「총여학생회」가 결성되있는 반면, 여학중심인 본교는 특히 여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감안할때 총학의 집행부서중의 하나인 여학생부가 갖고있는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여학우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받을 수있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다른학교의 예와 우리 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총학생회산하의 집행부서로서 여학생부가 활성화되기 힘든 몇가지 한계점을 짚어보자. 첫째, 총학생회는 일만이천외대학우속에 포함되어있는 여학생들의 특수한 처지와 이해요구를 수렴하여 행사를 진행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이는 여학생부가 전체사업속에서 역할분담이 되면서 매몰된다는데 있다. 이것은 단대별 여학생의사수렴및 집행의 통로를 마련키 힘들다.

또한, 총학생회와 단대집행부에서 여학생부에 대한 위상설정이 불분명하고, 독자적인 행사진행이 거의 힘든상태다.

둘째, 여학생활동의 장(場)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외대내의 활동의 경험과 이론적학습을 체계적으로 할수있는 공간과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일할 여학생활동가를 배출해낼수 없었다. 이는 총학의 여학생부를 비롯 단대, 과의 여학생부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치못하고 적극적인 실천또한 미비했음을 보면 알 수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여학생부의 존재 조차도 일반학생대중이 모를만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행사의 부재와 일회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여학생대중과 공감대형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도 지적된다.

84년 총학생회부활과 함께 총여학생회도 자치활동을 시작, 어느 학교보다 활발한 여학생활동을 벌여온 고대의 경우, 지난해 3월의 총여학생회장선거를 비롯하여 일반여학우와 함께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틀로서의 행사가 다양했다.

특히, 「자주강좌」란 대중교육프로그램은 제도교육속에서 올바르게 수행치못했던 여성 교육을 비판하고 여학생들이 올바르게 자신을 인식, 그것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도록 마련된 기획으로써 여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특징이라 할 수있다. 「여성과 직업」「올바른 남녀관계」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 기획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 여학생뿐만아니라 남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한다.

특히 총여학생회의 여름방학중 여성학교행사에 직접 3천여학우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배려는 여학우 개개인이 주체임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만하다.

실질적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되어지는 총여학생회는 일반학생들의 의식과 참여를 유발해내는 역할을 수행해내며, 자치적인 활동공간을 스스로 구축해낸다.

그러나, 외대내의 상황은 여학생부의 구조적한계를 극복하고,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는것은 아직은 어려운 시점에 있다.

총학생회 여학생부장 김미희양 (동양·일어4) 의 말에 따르면『각 단대에도 여학생부가 있지만, 부장만 있는 형태에요. 외대여학우의 보다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가 총여학생회를 건설할수있으리라봅니다.』

물론 총여학생회는 그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여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치적 경험을 쌓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할때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4대총여학생회장인 성대의 이주한양 (수교·4)은『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듯한 집행부로써의 총여학생회는 무의미합니다. 대중과 유리된 조직은 이미 조직이 아니니까요. 가장중요한것은 튼튼한 하부토대를 꾸리는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문제의식을 느끼고, 「움직이려는」의지가 있는 학우라면 과나 단대차원의 자생적인 모임, 즉 써클형식에서부터 출발하는것이 순서라고 강조한다.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모순에서 파생되어 나오는것으로써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이론적 정립은 시급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모임등은 활성화되어져야하며, 정확한 인식공유의 노력들이 기존의 여학생부의 역량강화와 함께 절실한 것이다.

하여 여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조직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결된 힘이 주체적으로 발휘된다면「총여학생회건설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시켜, 하나의 독자적 자치기구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듯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이 하나하나 묶어질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대부분의 총여학생회가 있는 학교의 경우, 실제로는 하부조직과의 결합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식있는 소수의 여학우들에 의해 발족된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여학생대중의 요구나 결의에 의해 행사가 추진된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나름대로 대중들의 무관심속에 진행시켜왔던것이다. 물론 제대로 잡히지않은 체계속에서준비미흡이나 홍보부족등 일반대중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지못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라는 자치공간의 상징적의미와 실질적인 자리매김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꾸준히 해내고, 노력하고 있는것이라 할수있다. 예를들어, 학생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남학생들의 전방문무대입소기간동안에 여학생들은 아무런 대책없는 불방학을 맞는다.

이에 위문편지나 꽃달아주기가 아닌, 조국의 분단현실과 학생군사교육의 본질에 대해 여학생도 함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함은 당연하다. 그런의미에서 작년 연대여학생부의 문무대방문은, 비록 남학생들의 무관심과 여학생들의 경험부재로 제대로 이뤄지지못했지만, 바로 이땅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고무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되어 진다.

이 시점에서 외대4천여학우의 단결의 구심체요, 독자적 자치기구인 총여학생회 건설을 거론하는 것이 시기상조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여학우들은 교육풍토전반에 걸친 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 보았을것이며, 사회진출에 있어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왔을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자발적노력에 의해, 남녀학생 공히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넓히고, 실천적 활동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총여학생회건설을전제로 과여학생회와 단대여학생회를 신설또는 강화시켜나가야겠다.

그리하여 결집된 힘을 이용해, 사회에 누적된 성차별—구체적으로는 여성차별취업구조, 임금차별, 조기정년퇴직제등—에 대한 토론과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여 한국여성의 삼중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로 서야한다.

그리고, 현재의 여학생부는 적극적인 자기변신의 노력을 통해, 외대 4천여학우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속에 굳건한 토대의 총여학생회를 건설할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겠다.

〈조경운기자〉

슬기로운 후배에게

◇총여학생회건설을 위한 제언

부당한 구속과 억압에 힘있게 거부할 수있는 용감한 여성이 되자

하늘이 아주 푸르다. 아카시아향이 가득한 5월의 교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5월의 하늘 아래에 서 있는 밝고 씩씩한 경이 또한 얼마나 이쁜지! 이제는 다시 5월을 이 교정에서 맞을 수 없어 섭섭하지만,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교정과, 그 속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대학생활에 익숙해졌을 경이에게 하고싶었던 얘기들을 해볼게.

『올해는 여학생이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쳤어!』『여자애가 뭐하러 이런 과목을 전공하지? 결혼하면 써먹지도 못할텐데』내가 처음 대학을 들어왔을 때 주위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갔다. 자유와낭만과 진리를 생각했던 대학생활이 실제나에게는 협박으로 다가온 것이다. 여자애답지않게(!) 사회학을 전공한 우리과 여학생은 3명이었고, 과분위기를 망치지 않았음에 스스로 안도해했다. 본디, 성격이 적극적인 우리과 여학생들은 별 무리없이 남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사회학과의 문화속에 녹아들어갔다.

밖에서 보기에 거칠고 투박스럽고 과격한 문화속에! 1학기가 끝날때까지 의식적으로 여학생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여성임을 내세우지 않았다. 나는 보호받기 싫었고 연약해 보이기가 싫었기 때문에, 보통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있는데, 왜 굳이총여학생회를 만들까? 여학생들만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나의 1학년은이런 생각들 때문에 의식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하는 모든 행사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냈다.

대학생활은 참으로 불편한게 많았다. 복지시설도 여학생을 위한 것이 너무 적었고, 졸업 후 취업문제에 있어서도 학교측은 너무나 무성의했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취직하기가 더 많이 힘든데도 체육시간의 수업내용도 축구나 농구였고 여학생들이 꼭 알고있어야할 문제에 대해서도 교양과목 하나 없었다. 이러한 작은 불평들은 우리과 여학생들의 입을내밀게 만들었고, 알고보니 모든 여학생들이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문제가 있음을 느끼면서도 의식적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갈수록 나는 우리들만의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느꼈다. 인류가 발전해 올수있는 이유는 인간이 부당한 억압과 구속에 맞서 싸웠기때문인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당하는 특수한 억압에 대항하는 특수한(!) 투쟁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허위의식때문이었다. 여성이사회적으로 열등하게 대우받는 현실은 여성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조가 여성을 그렇게 위치지웠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부터 우리의 움직임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터 말이다.

경아! 작고 여린 모습이 여성의 본디 모습이 아니듯이, 우리는 건강하고 활발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한다. 슬기로운 너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들의 지혜와 행동을 모아나가는지 잘 알고 있을꺼다. 경아가 2학년 때에는 너와, 네 친구들 선배들의 노력으로 여학생회의 깃발을 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당한 구속과 억압에는 힘있게 거부할 수 있는 용감한 우리가 되자꾸나!

이정미

〈한양대·사회학과 졸업〉

독자칼럼

늦은밤, 포장마차를 찾는이유

이승호

〈서문·이태리어 3〉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엄청난 격차를 극복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자.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가장 먼저 터졌던 사건이「전경환 새마을본부 비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새마을본부 비리는 5공화국 시절, 국회내·외에서 끊임없이 추궁되던 문제였으나 당시의 관리들은『그런일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했었다. 그러나 6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로 인한 비정당성을 제5공화국과의 단절로서 무마해 보려는 노정권의 술책은 새마을 본부의 비리를 첫 희생양으로 제물대에 올려 놓았던 것이다.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말도 있으나 어쨌든 「새마을본부비리」사건이 제5공화국의 부정부패를 들추어 내는 첫 매듭이었던 것만은 사실인것 같다. 더군다나 제13대 국회가 야당 의원의 다수의석확보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야당 의원 다수가 기존의 기회주의적 인물들이 제외된채 이루어져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도 제5공화국의 비리는 계속 들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제5공화국의비리는 그것을 철저히 캐내어 응징하고 공명정치를 하게한다는 정의성 외에 우리네 사람들에게는 삭아들지 않는씁쓸한 감을 주고 있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돈없고 빽없으면 세상 어떻게 사나?』라는 말이 항간에회자됨은 적어도 이 시대가 도대체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산업사회가 양산해내는「물질만능주의적사고」의 탓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이후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형 부정비리—장영자사건을 비롯, 명성콘도의 김철호 사장사건 그리고 새마을 비리와 가장 최근에 등장한「영신·장일금고」사건은 그 액수로 보나, 관(官)과의 결탁 속에서 진행되어온 것으로 보나 우리네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좌절감과 패배의식으로 몰아넣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것 같다.

하도 모진 세파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그간 우리들의 간도 커질대로 커져서 백억이네, 천억이네 하는 돈, 말로만 듣는 것에도 귀가 익숙해질대로 익숙해졌고, 늘 있는 일이려니 하고만다고들 하지만, 늦은 밤 포장마차집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은 다만 술이 좋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관(官)과 돈의 결탁.

형님은 정치가라는 허울속에서 온갖반민중적,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동생은『아무게가 내 형님이니 덕 좀 보자』고 날뛰었단다. 이제는「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웬 사나이가「영신·장일금고」건(件)으로 7백억원이라는 숫자를 또 신문지상에 올려 놓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구는 평생을 막노동판에서 보내다가 조문객 하나도 맞지 못한 채 죽어간다. 그러나 누구는 날때부터 부자였다.

그리고 그러한 편차는 이 좁은 땅에서 너무나도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엔 더 이상은 못살겠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연일 파업보도가 신문의 한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진자들은 이런일이 자신을향한 소리임을 알지 못한다는듯 마냥 쾌락을 즐긴다.

제5공화국의 비리는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물론 6공화국이 5공화국과 별반다를것이없다. 하지만 우리의 민의를 야당다수를 국회로 보냄으로써 보여주었다. 이제 그들의 국회활동에대해 기대도 해보자.

그러나, 이 사회가 안고있는 가진자와 못가진 자의 엄청난 격차를 극복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자.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순을 극복하는 주체로서 당당히 서고자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1988학년도 9월학기 석사과정 학생모집
경희대학교
平和福祉大学院
The C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세계적인 안목을 키워 종합문명사회의 지도자되자—

1. 모집학과 및 전공(석사과정, 2년 6개월, 약간명)
   평화, 안보학과－평화학, 안보학
   동북아학과－한국, 일본, 중국, 연안국
   정책학과－공공정책, 지도자론, 매스컴
   국제경영학과－국제경영, 국제경제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노사관계, 새마을운동, 밝은사회운동
2. 응시자격 : 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예정자로서 최종학력2년간 평균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전형방법 : 1) 필기시험－영어청취력, 영어작문, 번역(영문→국문), 논문(국문), (85년 1월 1일 이후 TOEFL에 응시하여 580점 이상 취득한 자는 논문 시험에만 응시)
   2) 1차면접－1)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2차면접 및 체력검사－2)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1통
   3)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4) 총(학)장 및 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 각 1통 (사회경력소지자는 최고책임자와 직속상사의 추천서 각 1통)
   5)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학생자치회간부를 역임한 자는 소정증명서 각 1통
   6) 주민등록증 사본 1통
   7) 사진(반명함판) 3매
5. 장학제도 : 1) 입학생에게는 기숙사(三正青幹)에서 숙식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하여 숙식 장학금을 지급함.
   2)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라 학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주지사항 : 1) 본 대학원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평화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 함.
   2) 본 대학원은 1983년 10월 29일 문교부인가를 받아 1984년 9월 25일 개원한 국제적 성격의 대학원임.
   3)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임.
   4) 수여학위는 전공과목에 따라 정치학, 경영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5) 강의는 토의, 세미나, 개인지도 방법 등에 의해 진행됨.
   6) 강의는 영어로 함. 단 학위논문 작성에 있어서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한국어, 일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음.
   7) 교수진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됨.
7. 원서교부·접수 : 1) 기간－1988. 6. 7(화)～6. 14(화) 17 : 00
   2) 장소－본 대학원 교학부(경기도 광릉 소재)
8. 전형기간 및 장소 : 1) 필기시험 : 1988. 6. 17(금) 10 : 00
   2) 1차면접 : 1988. 6. 22(수) 10 : 00
   3) 2차면접 및 체력검사 : 1988. 6. 27(월) 10 : 00
   4) 장소 : 본 대학원
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원 교학부(경기도 광릉 소재)
10. 합격자 발표 : 1988. 7. 5(화) 10 : 00 본 대학원 교학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바람.
(80－233－2992, 02－234－0220, 0346－65－7621～8)

하계방학
외국어특강

시간 \ 강의실	3501	34(A)	2854	2306	3106	3306
8 : 30 ｜ 9 : 50	아카데미 TOEFL A	Vocabulary 22,000 B	영어순해 C	이재옥 TOEFL D	성문 종합영어 E	영어회화 (초급) F
10 : 00 ｜ 11 : 20	아카데미 TOEFL G	Basic English H	영작문 I	시사 영문독해 J	캠퍼스 日本語 (초급) K	Vocabulary 33,000 L
11 : 30 ｜ 12 : 50	시사 TOEFL M	TOEFL L. C. N				

제2 Campus 개설과목

시간 \ 강의실	2204
13 : 30 ｜ 14 : 50	아카데미 TOEFL A1

○강의기간 : 6월27일～1988년 8월18일(월～목)
※ 혹서기 휴강일정 : 7월27일(수), 28일(목)
○수 강 료 : 각 반 ₩10,000
○접수기간 : 6월20일부터(선착순마감)
○접 수 처 : 제1,2캠퍼스 어학원 사무실

강의실 \ 시간	8 : 30－9 : 20	9 : 30－10 : 20	10 : 30－11 : 20	11 : 30－12 : 20
3403	외국인영어회화 (중급) O	외국인영어회화 (중급) P	외국인영어회화 (중급) Q	외국인영어회화 (중급) R
3404		외국인영어회화 (고급) S	외국인영어회화 (고급) T	

■각반 정원 20명
■강의기간 및 접수기간은 위와 동일
■수강료는 각반 ₩25,.000

중앙대학교 어학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시사영어학원의 자부심!

TOEFL
VOCABULARY
LISTENING
GRAMMAR
READING
TIME
영어회화
STREAMLINE
일본어·독일어
TOEFL600(종합반)

시내에는 수많은 외국어학원이 있읍니다. 그만큼 외국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가장 중요한 외국어 길잡이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학원이라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책임질 수 있읍니다. 이제 시사영어학원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강 : 6월 1일

종로2가 종각뒤편
時事英語學院
상담대표전화 734-2442

컴퓨터
통학권 발급, 휴일도 접수함.

19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개강 : 매월 첫째 월요일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7개월)
프로그래밍 전문과정 (1년)
프로그래밍 속성과정 (4개월)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EDPS입문, FORTRAN, COBOL, ASSEMBLY PASCAL, BASIC, DOS 및 CP/M, DATA BASE, SYSTEM분석 및 설계, WORD PROCESSOR, 자료구조, 기초통계, C-LANGUAGE.

※ 대학생 하계방학 특강 ※
1. 프로그래밍 특강
   - 과목 : FORTRAN, PASCAL, BASIC
   - 기간 : 6월 27일～8월 12일
   - 시간 : 오후 2시～5시까지
2. 정보처리기사 대비 특강
   - 기간 : 6월 27일～7월 29일
   - 시간 : 오후 2시～6시까지

본원 이대입구 전철역옆(중앙빌딩) 313－1711～4
종로 단성사옆 비원쪽 (중앙빌딩) 745－0461～2
영등포 영등포역 여의도쪽 100m(한전옆) 678－3785, 0750
영동 영동 사거리 주택은행옆 546－4255～6
부산 부산역앞(중앙빌딩)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중앙전산학원

全國大學新聞
광고문의 · 741－1166, 1662
애드·젠

맑스의 국가론과 한국에서의 적실성 문제

국가는 계급적 속성 반영한 상부구조

맑스 국가론으로 신식민지적 파시즘 규명해야

이 정 원

〈동문·스와힐리어 88년졸업〉

> 이글은 지난5월10일자(제490호)에 실렸던 「마르크스혁명론 : 그 현재적 의의」에 대한 일정한 반론을 제기하고있다. 즉 한국의 현실에서 보다 유용한 마르크시즘의 분석틀은 혁명론의 분석보다 우선적으로국가론의 구체적 적용에 있음을 강조하고있다. <학술부>

Ⅰ. 문제의 제기

「혁명적인 이론없이는 혁명적 운동은 없다」는 레닌(Lenin)의 문구는 오늘날 변혁운동의 과정에 있어서 그 실천뿐만 아니라 이념적 토대의 중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운동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제로 변혁주체론, 계급론, 국가론, 통일전선론, 특히 사회구성체론이나 사회성격논쟁등은 아직 그 과학성이나 실천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민족운동, 통일운동을 위한 그지평의 확대라는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적인 이론적 틀(framework)이라 할 수 있는 맑시즘의 한국적 연구현황은 잘해야 소개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국가론에 국한하여 보았을때, 서구에서는 60~70년대를 거쳐 밀리반드와 풀란차스의 도구주의와 구조주의 국가논쟁, 또한 국가 도출학파와 프랑크푸르트학파간의 논쟁등을 통하여 하나의 신화(Myth)로서가 아니라 과학(Science)으로서의 맑시즘을 능동적으로 규명하고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맑시즘의 연구는 순수한 학문적으로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작업임에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맑시즘의 과학적 연구가 부재한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대체로 기인할 것이다.

첫째, 한국적인 냉전상황에서 맑시즘을 인류가 경험한것중 최악의 전체주의를 낳게한 정신적비조로서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한 유물론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맑시즘의 연구의 토대인 그의 저작의 번역, 출간, 연구의 제한도 그원인으로 들 수 있다. 셋째,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서 지나치게 소외(alienation)만을 강조하는 휴머니스트로서의 맑스가 부각되었기때문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맑시즘을 극단적인 혁명이데올로기로만 일반화 시키려는 시도 역시 맑시즘의 실체를 왜곡시켜온 결과를 가져 온것도 사실이다.

또하나 맑스의 깊은 지식의 수준만큼 보는 사람에 따라 맑스를 철학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보는, 상이한 견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론을 중심으로 하여 맑시즘을 조명해 나갈때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다. 맑스 자체가 『자본론(The Capital)』수준 만큼의 체계적인 논의를 국가론에서 제기하지 못함에 따라 맑스의 국가관을 보는시각과 그 이후의 맑시즘적 국가론의 전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견해를 받아들여 맑스의 국가관과 그 이후 파생된 맑시즘적 국가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국가론의 한국적 객실성의 문제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Ⅱ. 맑스의 국가론 전개

엄밀하게 말하면 맑스자체의 국가론과 그 이후의 수정 맑시스트 혹은 네오 맑시스트의 국가론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들도 궁극적으로 그 해석에 맑스의 원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맑스의 국가론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론의 전개에 앞서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지식도 필요하다.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초보적인 혼란의 하나는 국가의 개념을 너무 확대시켜 민족·나라·국민등과 같은 생활공동체와 동일시 하는것이다. 일상언어안에서 사용되는 국가의 개념에는 분명하게 이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지배와 통제를 행사해가는 통치기구 및 이들의 연관기능으로 좁혀져야 한다. 즉, 국가개념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의 재생산에 있다.

1) 초기 맑스의 관점

알뛰세(L. Althusser)는 맑스의 저작을 중심으로 초기(1840—1845), 전환기(45~46), 이행기(46~57), 성숙기(57~83)로 나눈바 있다. 맑스에 있어서 초기란 그의 관념적 시기로 칸트나 절연하고, 헤겔의 관념론과 투쟁하며,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에 수정을 가했던 시기로 『경제철학 수고』, 『신성가족』 등의 저작이 이기간에포함된다.

초기 맑스에서 나타난 국가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와국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것이 먼저 필요하다. 시민사회라고 하는것은 봉건사회를 폐기시키고 시민계급의 계급적 지배를 수반하는 근대사회의 확립을 계기로 한다.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1846)』에서 시민사회를 『고대및중세의 공동체사회로 부터 분리되었던 18세기에 출현하였다. 시민사회는 부르조아지와 함께 발전한 것이다.』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헤겔은 국가는 관료제의 중립성을 통해 『만인(萬人)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인 시민사회의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더나아가 「절대정신(Der absolute Geist)」을 구현하는 실질적존재였다.

여기에 대해 맑스는 『헤겔법철학 비판서설』(1843~44)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헤겔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헤겔의 관념적·추상적인 국가인식에서 분리시켜 「물질적생활상」이라는 근거위에 올려놓으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본질과 목적은 여전히 헤겔의 「이성국가」관을 척도로 하여 경험적 현실성에 있어서 국가를 비판하는 관점, 즉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헤겔의 입헌군주제옹호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맑스는 헤겔의 영향하에서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등을 역설한 점에서도 사회민주주의자로서 「국가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였다고 보여진다.

2) 도구주의적 관점

일반적으로 맑스에 있어서 국가를 이야기할때 받아들여지는 관점이다. 도구주의적 관점은 국가를 생산관계와 이에서 결과되는 경제적 계급투쟁을 반영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1848년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유명한『현대국가는 전체 부르조아지의 공동업무를 관리하기위한 집행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남겼다즉 맑스는 국가를 자본과 임노동자간의 계급투쟁속에서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왜 초기 국가에 대한어느정도의 신뢰가능성에서 왜이러한 기계론적 결정론으로 전환했는가? 이에대한 관심이 가해지고 있으나 최초의 노동자정부였던 파리코뮌의 붕괴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다.

파리크뮌의 사건의 의미를 논의하고 있는 『프랑스 내전』(1871)에서 맑스는 『루이나폴레옹의 제국은 의회정치를 파괴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보호한다고 언명하였으나, 이와함께 유산계급에 대한 정부의 종속성도 선언하였다』라고 언급하였고, 『루이 나폴레옹의 부뤼메즈 18일』(1852)에서는 『국가권력은 중립지대에 걸쳐있는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에서 볼수있듯 국가는 사회전체의 공통적인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지배자 피지배 관계위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합리화 시켜주는 도구에 불과 한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가족·사유 재산 및국가의 기원』(1884)에서 『계급간의 적대행위를 진입할 필요에서 국가가 발생하였고…(중략)…또 이들은(지배계급) 국가라는 수단을 통하여정치적으로 지배계급이 되며, 따라서 피압박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되는 것이다.』

또한 레닌은 1917년 『국가와 혁명』에서 『국가—그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이다.』라는 언명에서 알수 있듯이 도구주의적 관점은 맑스와 엥겔스 레닌으로 이어지는 이론바 전통적맑시스트의 정통적국가이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네오 맑시스트인 밀리반드 역시 이와같은 관점에 서있다. 그러나 전통적 맑시스트와의 큰 차이점은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맑시즘과 정치학』(1977)에서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의 구절의 주장은 부르조아계급 내부의 다원적 특수이익들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명령에 의해서가아니라 지배계급을 대신하여 행동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다원적 특수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다. 이러한 이익을 결집시키는것은 바로 다원적 엘리트이다.

밀리반드는 바로 다원적엘리트도 그의 저서인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국가』(1969)에서 『고도의 응집력과 연대성』으로 결국 지배계급이 되고 만다는 도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이에대해 역시 네오 맑시스트인 풀란차스에게 「다원적 엘리트」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바로상대편(우파)의 인식론적 원리, 즉 자유주의적 다원적전통을 무의식적이고 은밀하게 오염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만다. 이것이 국가론에 있어서 고전적인 논쟁인 「풀란차스와 밀리반드의 논쟁」을불러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구조주의적 관점

그러나 이러한 도구주의적인 틀에서 보면 맑스의 국가는 부르조아의 경제적 이해만을 반영한 지극히 경제주의적 경향의 특징을 내포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이견으로 국가의 기능은 지배계급을 장악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폭넓게 결정된다는 것이 구조주의적 관점이다. 따라서 국가는 지배계급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정치영역에 있어서 독자성을 발휘하게 된다.

도구주의적 관점이 갖는 국가의 경제환원적, 수동적 성격만을 내포할 뿐 그 자체의 자율적성격과 기능을 거의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관점에 맑시스트로 체계적으로 비판한 사람은 그람시(A. Gramsci)였다. 이태리의 파시즘을 연구대상으로한 그에 의하면 국가는 이데올로기를 독점함에 따라 시민사회에 무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에 따라 정당성확보에 있어서 억압에 의한 지배뿐 아니라 동의에 의한 지배를 행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맑시스트 내부에 문제의식을 고취 시켰다.

그러나 구조주적 관점의 대표적 학자는 풀란차스라 할 수 있다. 그는 맑스의 『부뤼메이18일』과 『프랑스 내전』의 원전에서 구조적인 관점을 도출하였다.

맑스는 이 저작에서 프랑스 2월혁명이후 부르조아지가 반동화되어 자신의 계급 일반의 이익이 피압박대중들의 계속적인 계급투쟁에 의해 위협받았을때 그들의 지배형태였던 공화제를 버리고 보나파르트 독재의 품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맡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과정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패퇴를 보여주고 있다.

풀란차스의 유추에 의하면 맑스가 이 저작에서 주장했던 것은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던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나파르트체제라는 관료행정이 정치적으로 무능력하고 분열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지속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력과 사회계급』(1973)에서 「자본주의국가는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이익을 책임맡고, 부르조아지가 이룩할 수 없는 정치적 기능을 실현시키게 된다. 자본주의 국가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르조아지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취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정치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국가는 전체계급을 조직화 할 수 있을때 지배계급에 공헌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이유를 풀란차스 과학적으로 규명하지는 않고있다.

구조주의적 관점의 공헌은 맑스의 국가를토대·상부구조공식의 기계적 해석에 기반을 둔 경제주의적 결정론에 논박을 가하고 국가자율성의 제시를 통하여 오늘날 자본주의국가의 정확한 성격규명에 크게 기여한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관점이 맑스의 국가론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풀란차스는 맑스 저작의 전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원작의 의미를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맑스 국가론이라고 할때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도구주의적 관점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독특한 구조를 간과한채 국가를 단지 특정집단의 이용물로서만 파악함으로써, 국가자체의 성격논의가 불모화된 결과를 낳게되었다. 따라서 그의 대안으로 나온 구조주의적 관점은 상대의 자율성의 개념제시로인해 오늘날 국가론논의에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반면 전통적 맑시즘적인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도구주의나 구조주의가 합치될 수 있는부분은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든 없든 지배권력의 충실한 집행관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맑스 자신이 가장 원초적인 국가에 대한 인식이었음에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명제에 대해서 맑스나 도구주의자나 구조주의자 역시 계급투쟁에 명제에 대한 완고한 집착이 있다. 그이유는 명확하다.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배계급의 이해에 어느정도 떠날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노·간의 대립이라는 기본모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제나 국가는 자본가의 이해속에 움직이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Ⅲ. 맑스의 국가론의 한국적 적실성의 문제

맑스의 국가론의 한국사회구성체에서의 적실성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맑스자체의 국가론이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모델로 삼음에 따라 그것이 비 서구사회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부르조아지의 혁명을 통하여 그들이 사회에 지배적인 계급으로 등장함에 따라 결국 국가도 이들의 계급적속성을 반영하는 상부구조임에 반하여 비 서구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서구사회와는 국가의 그 근본적인 출발이 다르다.

알라비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아시아의 탈식민지 사회를 대상으로하여, 이들 사회에서는 중심부 부르조아지와 토착 부르조아지, 지주 중 어느계급도 단일한 지배계급을 형성하지 못하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자율성을 지니게 되고 이자율성은 식민지 시대에 과대성장하여 독립후에도 계승되는 국가기구에 기인한다.

한국국가에 이러한 과대성장론을 적용시킬수 있다. 최장집 교수에 의하면 해방후 폭발적으로 정치화된 시민사회의 팽창이 미·소 냉전의 급속한 전개와 마주친 결과, 시민사회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국내적 계급기반을 거의 갖지않는 따라서 거의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는 과대성장국가가 성립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하나 한국의 국가성격은 맑스가 이야기한 국가와는 달리, 세계체제속의 신식민주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신식민주의란 제국주의가 무력에 의한 직접적 식민지 수탈방식이 식민지민중의광범위한 민족해방투쟁으로 위기를 느껴식민지에서 직접통치를 피하고, 거기에 자본제 사회구조를 설치해 합법적인 상부구조 하에 직접투자 또는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형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성을 가지게 되고 민중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견고한 관료제를 수단으로 물리력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또한반공적인 이데올로기로, 국민의 저항의식이 발현되는것을 억제하는 방법을 부차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통치형태는 파시즘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국가는 그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해외세력과토착예속지배세력의 신식민지적 지배이며, 그 권력구조는 신식민지적 성격과 파시즘의 성격을 특징으로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는 미·소의 국제정치의 매카니즘이 국가의 기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제국주의적 이해가 관철되는과정에서 다른 종속국에 비해 훨씬 강압적이고 비극적인 분단이 고착화 된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특수성으로인하여 과연 맑시즘의 한국적적용성은 없다고 이야기 할수있을까? 그렇지 않다. 종속적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의 자본주의적 토대 또한 확대 재생산되어왔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종속적 자본축적을 진행시키기 위해 피지배계급에 대한 효율적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에대한효율적 통제없이는 저곡가, 저임금에 기초한 종속적 축적이불가능하다. 이러한 통제를 위한 국가의 제반정책과 법률및 각종조치들의 계급적인 성격을규명하는데 맑시즘적 국가로써얼마든지 적용될수있다.

따라서 한국적특수성에도불구하고 노·자간의 기본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맑시즘적 국가로의 적용범위가매우 넓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요청되는것은 맑스가 바랬던것이 과학적 규명자체라는 학문적인 요구가 아니라 민주변혁과 국가이행을위해서는 기존 사회관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지양」일 것이다.

따라서 맨 처음에 언급한 레닌의 문구에서 맑스의 국가연구의 목적과 역할과 우리에게 변혁의 과제들을 보여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학술단신

□흥사단—정기금요개척자강좌

6월3일오후7시 「바람직한 인생설계와 행복」(강사 : 변우량, 그리스도신대교수)이라는 주제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길역사 강좌

매주목요일 오후7시에 한길사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한길역사강좌는 제15기「북한사의 새로운 인식」을 주제로 5월12일부터열려 6월30일까지 계속된다.

6월2일 : 「사회주의 경제건설」
6월9일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계속 혁명론」
6월16일 : 「자주노선과 대외정책」
6월24일 : 「한반도 통일전략」
6월30일 : 「북한사의 전망」
강사 : 김남식 (북한문제연구가)

□역사문제연구소—화요강좌

지난5월3일부터 시작된 제5기「한국사교실Ⅴ : 한국사회 어떻게 볼것인가Ⅱ」가6월14일까지 매주화요일 오후7시에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에서 열린다.

5월31일 「해방후 노동운동의 양상과 과제」 강사 : 김금수(한국노동교육협회장)

6월7일 「북한문제의 재인식」 강사 : 양성철」(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6월14일 「언론을 통해본 한국사회의 실상과 허상」 강사 : 송건호 (현대사 연구가)

문의전화는 738—2181, 736—2084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움

6월3일(금)부터 4일(토)까지「한국산업사회연구회」등 10여개 학술연구단체가 한양대학교에서 매일오전10시부터 연합심포지움을 진행한다.

▲6월3일 (올림픽체육관 세미나실)
기조발표 : 민족적·민중적학문을 제창한다.
발표 :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교수)
제1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사회 : 최장집 (고려대 정치학과교수)

▲6월4일 (외과대학 계단강의실)
제2부 한국사회의 역사적·구조적분석
1분과 :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동
2분과 : 한국사회운동과 역사
3분과 : 문학·문화·이데올로기

맛좋고·먹기좋고·효과좋은 비타민C—레모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피로할때,
기미·주근깨에,
거칠어진 피부에.

먹는 화장품?

아름다움의 요소—비타민C
부드럽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원하시는 여성에게
비타민C「레모나」를 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아는
여성의 센스있는 선택—
「레모나」는 체내로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비타민C 제제입니다.
*레모나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표준소매가격 : 20포 2,000원/240포 23,000원

■피부미용에 ■감기예방에 ■공부할때 ■여행·운전할때 ■운동전후에 ■술·담배전후에

레모나
PM 경남제약주식회사
복합 비타민 C 레모나
레모나

북한 통일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통일정책은 외세의 축출과 민주화를 전제해
고려민주연방제는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자는것

서 영 호
<현대사연구가>

특집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고찰

Ⅰ. 머리말

『북한 공산집단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당면목표를 ①주한미군 철수 ②서울올림픽 파괴③남한내 공산세력 확장과 지하당 구축에 두고 광분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상황에서 최근 평민당 김대중씨의 양심수 전원석방, 올림픽 공동개최, 남북 정당대표 판문점 회담제의등 일련의 발언은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동시에 김일성의 적화통일전선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망언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글은 지난 5월25일 (수) 자 한국일보에 실린 반공애국단체총연합회 명의의「평민당 김대중총재에게 보내는 공개장」의 일부 내용을 옮긴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자리에서 이 공개장의 내용을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한단면이니, 극우 반공단체가 가끔씩 정부를 대신해 하는 반공 이데올로기 주입의 일모습이니 하며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민족이 그토록 원해오던 남북한의 통일은 결코 반북한의식의 극복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흔히들 북한하면 대남적화통일을 떠올리는 것은 분단 44년간 길들여져온 편향된 반공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다. 물론 북한의 통일정책이 60년대전까지만해도「혁명기지노선」에 입각한 대남무력 적화통일의 내용을 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 자신에 의해서「혁명기지노선」이「지역혁명노선」으로 전환되면서 대남적화통일을 폐기한지 이미 오래이며, 60년대이후 줄곧 북한의 통일정책의 근간을 이루는「연방제」안은 오히려 7·4남북회담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충실히 살리고 있다는것 또한 사실임을 인식해야한다.

우리는 80년대이후 북한의 통일정책인「고려민주 연방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도 전에 먼저 [illegible]의 산물이니, 위장된 평화 [illegible]공세이니 하는 내용들을 주입받아 왔다.

북한의 통일정책을 무조건 백안시하는 낡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사고속에서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에게 철저히 차단되고 봉쇄되어 왔던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북한의 통일정책은「혁명기지노선」일때는 남북총선거 실시안을,「지역혁명노선」일때는 연방제안을 제시했다

얼마전 월간중앙 5월호에 최상룡 고려대교수는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과의「탈냉전시대의"통일논의」라는 대담에서『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그들의 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생겨난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하나의 원리 자체로서는 우리가 전면부정하기 힘든면이 있읍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일반인들이「고려민주연방제」안의 내용을 접할 기회조차 제한되어 왔던것이다.

이글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차단되고 굴절되어온 북한의 통일논의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목적에서 쓰여졌다. 이글은 먼저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을 한국전쟁시기부터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하며 특히 80년 이후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검토를 위해「고려민주연방제」안에 대한 몇가지 비판과 평기도 첨가한다.

Ⅱ. 북한통일정책의 역사적고찰

1. 한국전쟁 전후의 통일정책

미·소 냉전체제의 개시로 인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뒤 북한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결의에 따른 유엔한국 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하고 독자적 통일방안을 내세운다.

북한은 1949년 6월27일「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한뒤 하나의 통일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인에 의한 통일문제 해결, 미군철수, 입법기관 설치를 위한 총선거 실시, 정당, 사회단체 대표로선거위원회 구성등을 담고있다.

한편 김일성은 한국전쟁이 이승만 정권의 북침에 의해서 발발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수하고 나아가 남한을 해방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전쟁을 통한 무력통일론을 내세웠다.

2. 50년대 통일정책—자주적 평화통일론

북한 무력통일 정책의 공식적인 전환은 1953년 8월5일 조선 공산당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북한 내부의 강력한 속전(續戰)주장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상을 수락하라는 소·중의 압력과, 3년간 전쟁의 피폐로 동맹국의 원조없이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외적 조건에서 기인한다.

1954년 4월의 제네바 참전국회담에서 북한측 대표 남일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북한이 그후 10여년간 계속된 대남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내용은 6개월 이내에 외국군을 철수시킬것,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 총선거 실시, 총선준비와 남북한의 경제및 문화접촉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각각 선출된「전 조선 위원회」를 결성할 것 등이다.

3. 4·19시기—연방제 통일론

북한은 4·19를「이승만 정권과 미·제국주의자에 반대하는 남조선 노동자, 농민, 청년들이 주축이된 인민전쟁」이라 규정하면서 계속적인「반이승만·반미투쟁」을 주장한다.

북한은 4월혁명 이후 남한내의 혁신정당을 비롯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통일론이 제기되자 1960년 8월15일 남북연방제를 발표한다.

「①외국 간섭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자유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것, ②남북 총선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 조선연방제를 제의한다….」

현재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안의 근간인「연방제」안이 이당시 처음 제시되었는데 쌍방의 정치체제와 그 활동을 존속, 보존시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방상태는 종국적인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조치였다.

4. 70년대—고려연방제론

60년대 후반의 국제적인 긴장완화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남한의 혁명을「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정식화함에 따라 남한내에 혁명역량이 증대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를 요구하며 북한의 무력공세는 이시기를 깃점으로 평화대화공세로 전환하게 된다.

북한은 1971년 평화통일 8개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남북공동성명이후「연방제」안을 구체화시키고 남북한 정치·군사적문제의 해결을 제의했다. 또 1973년 6월23일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제시하였데 그 내용은 ①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및 긴장상태완화 ②다방면의 교류와 합작실현 ③대민족회의 소집 ④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연방제실시 ⑤단일국호에 의한 UN가입등을 담고있다. 이 제안은 종래의 연방제안에 대민족회의를 추가하는등 방법상에 있어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여기서 제기된 대민족회의는 미군의 철수와 남북한 군감축을 통해 한반도의 비동맹중립노선을 추구하기위한 남북한 당국자뿐아니라 광범위한 계층이 모두 참여하여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전민족단일협의기구이다.

Ⅲ.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남북한 총선거 실시」에서「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인 남북연방제로 변화했다가 1980년10월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대회에서「통일의 완전한 형태」로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주장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①대한민국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른바 사회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②한국내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합법화하고 보장해야 한다③유신체제를 청산하고 현정권이 민주정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④미국의 분열주의적인 두 개의 조선책동을 저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이 중지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전제 조건 하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내용을 주장하고있다.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기본전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우선남과 북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지배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을 배척해도 안되고 또한 그것을 자기에게 용해시키려고 해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북의 제도와 사상이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를 우위에 놓고 그것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면 능히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 이론적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제 안은 또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남북이 같은 수와 자격을 가지는 대표들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통일정부 밑에서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방공화국이 하나의 통일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치지역으로 구성되는 연방국가로 창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의 두 자치지역으로 구성하는 특수한 형태의 연방국가로 이 연방을 구성하게 될 두 지역은 국가로서의 고유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단위가 아니라 남북 두 지역이 연방정부 밑에서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전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자치지역이라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민족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있다

2. 민족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기능및 구성 원칙

북한측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안에서 남과 북의 같은수의 대표들과 적당한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연방 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 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방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민족대표 또는 주대표들로 양원제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 제안에 따르면 남북지역 정부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일원제로 연방국가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의 기능은 세가지로 대별되는데 우선 첫째는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따라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 외교, 국방과 같은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만을 토의, 결정한다. 두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의 단결 합작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남과 북의 사회제도와 행정조직, 각당 각파와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하여 어느쪽이 다른 쪽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은 상반되는 제도 위에서 수립되는 통일정부이므로 남과 북 어느 한 지역의 이념과 제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한 계급 계층의 의사와 요구만을 실현하는데 복무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 민족을 유일하게 대표해야 하며, 연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전조선민족을 대표하여 국제행사에 대표단을 보내야 할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민족통일정부 밑에있는 지역정부의 기능은 자기지역에 존재하는 제도와 사상의 요구에 맞게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있다. 그 정책은 반드시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맞는 범위에서 그리고 남북의 차이를 줄이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방국가의국호와성격

북한은 연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고려가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공인된 나라 이름으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첫 통일국가라는것을 살리자는데에 있다고 한다.

고려는 그당시까지 따로 갈라져 있던 발해, 신라, 후백제등의 주민들을 하나의 국가적인 지배하에 통합하였고 또한 생산력과 각기 특징적인 문화전통을 단일한 국가지배에 통합하고 계승 발전시켰던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과 북의 공통된 정치이념에 착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이념인 민주주의를 연방국가의 국호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제도, 상이한 정치제도 위에 세워지게 되는 특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성격 역시 반드시 어떤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Ⅴ. 북한통일정책의 성격과 평가

북한의 통일정책은 일관되게 외세의 축출과 남한의 사회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기조와 때를 같이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북한의 대남전략기조는 한국전쟁때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혁명기지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북한 스스로가 한반도혁명의「민주기지」가 되어야 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대남 전략·전술공세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시기 북한의통일논의는「남북한총선거」등을 통한 평화적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말까지「혁명기지노선」대신「지역혁명노선」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통일정책도 새로운 변모를 기한다. 이 노선은 8·15이후 남북한 사회의 성격이 서로상이하게 변화되었고, 또 남한내부에 이미 자체적인 민주역량이 구비되었으므로 통일의 구심점이나 혁명의 주요동력을 남한의 내부에 두어도 좋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남한의 변화에따라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줄기차게「연방제」안을 주장하게 된다.

한편「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남한의 민주역량과 북한의 적절한 조응이라는 전략기조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 제기된다. 이 제안에 대해서 김중익교수는 81년「한미정치학회」에서「한국통일정책의 재고와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쌍방의 모든 문제점과 주장을 포괄시킴과 동시에 구체안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조건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내용은 우선 첫째, 쌍방의 정치적, 이념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 북한이 먼저 연방제를 제안했다고해서 이를 적색화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려야하며, 세째 연방제 실천에 앞서 연방국회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등이그것이다.

그러나 김학준교수는 표기상의 문제를 들어 내념의 모호성이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영어로「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로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연방제로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연합제임을 명백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두개의 국가연합에 따른「두개의 한국」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안을 제의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제의하는 평화공존의 논리를「두개의 조선」책동이라고 비난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를 어떻게 지도하며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외교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반공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의 강요로 일관되고있는 점도 고려민주연방제안이 갖고있는 취약성으로 지적할수있겠다.

"쉽게 따는 병뚜껑, 캔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자존심이 숨쉬고 있읍니다."

무심코 따는 병뚜껑, 캔 꼭지 하나에도 우리의 긍지가 담겨있음을 아십니까?
1945년. 조국광복의 감격이 온나라에 가득하던 해였읍니다. 그 기쁨과 함께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탄생한 해태는 우리의 상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성실히 일해 왔읍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정성껏 재배한 사과, 포도, 감귤등의 과일과 보리를 대량수매하여 만들어지는 '해태써니텐' '해태보리텐' 은 농가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특히 콜라만큼은 외국상표여야한다는 주위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입맛에 맞는 우리상표의 '해태콜라' 를 개발하여 한국인의 긍지를 지켜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본으로 온국민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해태의 정신입니다.
우리것을 아끼는 우리민족의 기업 해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음료

천연과일쥬스로 만든 써니텐 건강보리음료 보리텐 우리의 것 해태콜라

공동연구

한국사회성격 규명을 위한 일제언

-국가독점자본주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최 상 철 〈상경·경제 86년졸업〉
이 현 민 〈서양·독어4〉

「특수성」과「보편성」을 분리한 사회구성체 분석은 실천과정상 계급화해주의 파생의 위험성내포

사적유물론을 도외시한 주관주의적 국가해석은 사회구성체의 올바른 규정 차단하는 장애요인

″신식민지사회는 국가 매개로 국독자의 일반적경향을 관철″

Ⅰ.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귀결된후 50, 6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의 대대적인 탄압은 남한 민중운동의 뿌리를 거의 제거해 버리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점점 고도화되는수탈과정으로 인한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조차 지극히 고립분산적인 저항과 절망적인 자해행위에 머무르게 된 것이었다.

80년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압제의 장벽을 부수려는 위대한 진군이 시작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지식인들의 운동에의 광범위한 진출은 급기야 올바른 변혁운동의 과학적인 이론작업을 활성화시키는데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었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사구체논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이론적 작업의 활성화」라는 남한 변혁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마저 당시까지마르크스—레닌주의 원론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약하여 프롤레타리아적 당파성을 철저히 현실화하지못한 상태였기에 한차원진전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때까지 CDR (시민민주혁명) 인가, NDR(민족민주혁명)혹은 PDR(민중민주혁명) 인가라는 맹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론적 수준의 척박함이라는 현실과 우리의 척박한 운동경험으로 인해 그 논쟁과정마저「사구체무용론」이나「아카데미즘적편향」이라는양극단의 장애를제거하는데에 극히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85년하반기에「국독자론대 주자론」이라는 형태로서 다시 한번 제기되었으며, 남한사회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이며 당면혁명의 성격은 NDR이라는입장에 대한 반론은 엉뚱하게도 남한사회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도외시한채 쁘띠부르조아적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AIPDR (반제 민중민주혁명) 이라는 관념적 운동론이 제기되기까지 이른다.

그이후 남한혁명운동이론의 연구는 식민지 반봉건론, 국제독점자본주의로, 식민지자본주의론등의 형태로 무수하게 제기된다.

즉 누구든지간에 글을 한번썼다하면 새로운 사구체론을 만들어 내었고 그리하여 각 그룹은 팜플렛하나를 발표할때마다 눈에띄는대로 이것저것을 끌어모아 강령이랍시고 내놓았고 그로인해 이시대 혁명운동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강령과 전략, 전술이론은 분열과 기회주의적 해독에 젖어 있었던것이다. 따라서 이제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적철학에 기초하여 남한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과학적 무기가 될 **강령의 토대로써**, 그리고 전략, 전술수립의 기본적 방향설정자로서 남한사회의 과학적 분석, 사회구성체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현재 혹자는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이 이미 낡은것이라는 주장을 하고있다고 한다. 세계자본주의단계가 제국주의로 돌입한 뒤로부터는 일국적 시야에서 형성된 사구체론은 낡은것이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의 사상이각이한 조건마다 그에 적합한 형태로 미리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점을 변명삼아 마르크스의 근본 명제마저도 부정하고 있는것이다.

이에대해「사회의 물질적 생산이 그 사회의 제반 물질적생활을 규정하고, 나아가 정치적, 사회문화적 생활을 규정한다」는 사적 유물론의 명제는 자본주의가 전세계적차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제국주의시대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어김없이 관철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이로부터 초래된 일반적 개념규정및 자본주의의 한 발전단계인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몰이해등이 더더욱 유물론적 분석을 도외시한「새로운 이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이해를 중심으로, 동시에 이에따라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첨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자본주의의 필연적 발전단계로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

1)세계체제의 형성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는 봉건제의 태내에서 발생하였다. 부르조아지는 봉건제와의 투쟁에 관한한 혁명적 계급으로서역사에 등장하였다. 부르조아지는 자기들이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체의 봉건적, 가부장적 목가적관계를 파괴하여 버리고 다만 노골적인 이해관계와 냉혹한「현금계산」관계만을 남겨 놓았다. 낡은 생산방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는 선행했던 모든 계급과는 달리 부르조아지는 생산도구에서 부단한 변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운동법칙은「상이한 이해관계, 상이한 법률, 상이한 정부, 상이한 관세들을 가지고 거의 동맹관계에 의해서만 연결되고 있던 독립적인 지방들이 하나의정부, 하나의 법률, 하나의 전국적 계급이해를 가진, 하나의 관세구역내에 사는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시켰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될수 밖에 없다. 자기 생산물의 판로를 부단히 확장하려는 부르조아지는「세계시장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부르조아지는 멸망이라는 위협으로써 모든 민족들에게 부르조아적 생산방식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며 소위 문명을 받아들이도록 다시말하면 부르조아지가 되도록 강요한다.

결국 부르조아지는 자기의모양대로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그리하여 부르조아지는「농촌을 도시의 지배에 종속」시키고,「마찬가지로미개국과 반미개국을 문명국에, 농업적 민족을 부르조아민족에, 동양을 서양에 종속」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부단한 자기증식을 요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형성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차원높은 생산력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낡은 생산관계를 해체 또는 예속시키면서 전세계적 차원의 지배—피지배의 구조를 창출하였다.

특히 제국주의국과 식민지, 반식민지국으로 나뉘어져, 제국주의국은 식민지국에 대한상품수출과자본수출뿐만 아니라 영토분할을실행하게된다. 레닌의 표현대로『자본주의는 식민지적 억압과 소수의 선진국에의한 압도적 다수의 세계인구에 대한 금융적 교살을 위한 세계체제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시대의 모든국가는 세계체제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제국주의권력에 있어서 식민지는 자본및 상품수출과 그들의 영토에 대한수탈로부터 생기는 막대한 이윤과 함께 공업및 농업원자재를 끌어쓸수있는 무한한 부의 원천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확대노정시키는 것에 불과했고, 그러한 모순은 마침내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로써 현상화되었다.

이제 제국주의 세계체제가 맞게 되는 전반적 위기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식민지지배의 종결과 신식민지적 지배의 출발점을 밝히는데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전반적 위기는 그들의 식민지˙지배체제의 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아울러 붕괴하는 식민지체제에 대한 제국주의의 대응방식에서 생기는 변화를 이해할수 있게해주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서는 세계체제의 전반적 위기와 국가독점의 필연적 발생에 그 논의의 폭을 제한하여 정리코자 한다.

2)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세계의 영토분할을 위한 식민지쟁탈전으로써의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의 승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제1단계에서의 러시아는 주위의 자본주의세계로부터 항상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1930년대 말에 이르면 후진농업국에서 상당한 정도로 발전한 산업국으로 전화하여 주요한 현대산업부문을 갖추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 위기는 전반적위기의 제1단계에서 시작된다. 독립투쟁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주체적 조건들이 식민지·반식민지에서 성숙하게 되는것이다. 이들의 산업은 비록 일면적이고 왜곡된 형태였지만, 성장하여 민족자본이 축적되었고 그와 동시에 민족부르조아지도 형성된다. 이와 동시적으로 식민주의에 대한 일관된 투쟁자인 국내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와 조직의 증가를 수반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대중, 무엇보다도 농민을 투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이러한 계급투쟁상의 격화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의 질곡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생산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부르조아지의 무능성은 여지없이 폭로되었으며, 그것은 생산시설가동률저하및 영구실업자군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국내시장의 고질적인 협소성과 같은 새로운 현상속에서 잘 나타났다.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현저히 나타났으며,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1년에는 산업경제공황을 겪게 되었다. 1920년에는 농업공황이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지속되었으면, 1920년대 중엽의 상대적, 부분적 안정기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29년에 자본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경제공황이 발생하여 바로 심각한 장기불황으로 어어졌다. 1937년에 새로운 공황을 맞을때까지 어떤 이렇다 할만한 호황도 없었으며 공황직전인 1928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된 전반적 위기 2단계에서는 영토, 시장, 세력권의 재분할을위한 투쟁과정이 격심해져 간 결과 현대세계의 기본적 계급적 모순이 일시적으로나마 뒤로밀리고 극우파시스트에 대항하여 제국주의국가가 사회주의국가의 지원마저 빌게된 전쟁이었다.

결국, 극우 파시즘의 패배는 많은종속국의 노동대중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지배에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할 조건을 형성시키고, 민주주의의 승리및 사회주의와의 통일전선을 일반화하게되는 여건을 제공하게된 것이다. 따라서 2차세계대전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의 붕괴를 고무하였다.

중국, 북베트남의 자본주의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이나, 신생국의 자립경제발전을 위한 반(反) 제국주의노선은 이제 제국주의로하여금 새로운 대응방침을 요구하게 하였으며, 더우기 경제의 불안정성의 심화는 부르조아지로 하여금 경제체제의 새로운 재편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급기야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체제는 전반적 위기 제3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급속히 확대된 세계사회주의권과의 경쟁속에서 미국을 중심[illegible] 제국주의의 질서를 재편하면서 [illegible]독점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illegible]고, 국제적 독점체를 형성하여 전반적위기의 진전을 막아보고자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적모순은 사회주의권과 민족해방투쟁역량에 의한 후퇴와 결합되어 전반적 위기의 제 특징들을 더욱더 노정시키게 된다.

많은 국가들의 자본주의로부터의 이탈, 사회주의와의 경쟁에서 자본주의의약화, 제국주의 식민지체제의 붕괴, 국가독점의 강화와 군국주의의 성장에 따른 모순의 심화, 생산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불안성과부패부르조아 정치및 사상의 심각한 위기현상, 이 모든 것이 전반적 위기현상이다.

즉, 사회주의권의 확대, 강화및 식민지체제의 완전한 붕괴는 제국주의를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극도의 위기상태로 몰고 갔으며 이의 구체적 대응형태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발전하게 된다.

3)국독자의 발생과 본질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레닌이 그 본질에 대해 언급한 바에 의하면『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것은 독점체의 힘과 국가의 힘이 하나의 기구로 결합된 것으로서 그것의 목적은 독점체를 살찌우고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를 구원하는 것』이다.

전반적 위기의 1단계에서 이는 전쟁기나 공황기에 이루어졌으나, 현단계에서는 독점자본가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로서 국가의힘을 더욱 이용, 확대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국독자로의 발전은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속화되었으며 많은 내적, 외적요인에 의해 고무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중요하고 객관적인 경제적 기반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성장, 자본의 집적및 집중화와 독점지배의 강화등이다. 숫적으로는 적지만 경제세력에서는 매우 큰 독점체집단이 국가를 지시하고, 정치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를 순종하는 도구로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었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은 국민적 규모의 자본집중화를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조세제도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국민소득을 국가재정에 축적하고있는 국가는,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개별자본의 활동에 필요한, 그러나 **자본가들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부문에 국영기업을 세운다. 국내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제적 규모에서의 자본집중화가 일어난다. 가령 서유럽독점체들은 그들의 노력과 국가의 힘을 결합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를 결성하여 그 속에서 핵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고있다. 따라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내적 규모뿐만아니라 국제적규모에서도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생산의 사회화는 상한선에 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가 완숙한 상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독자 발전의 정치적 배경은 주지하다시피 계급모순의 첨예화이다.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자계급및 노동계층에 대한 착취의 강화는 광범한 계층으로부터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조건하에서 파업은 성질상 정치적이며 국민적인 형태를 띤다. 이에 독점체는 스스로 대중적 저항에 대처할 만한 힘을 갖고있지 못하므로 국가의 힘에 의존하는 바가 점점 커지며 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독점체에 유리하게 규제하고, 모든 종류의 반(反) 노동법을 채택하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파업파괴행위를 조장하며, 임금을 동결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을 위해서 독점자본은 독점체와 국가기구의 결합된 힘에 의존하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 자본가 통합을 이용하며, 유럽경제공동체나 유럽자유무역연합과 같은 다국가독점연합체를 세움으로써 활로를 찾으려 한다. 이렇듯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독자의 발전은 식민지체제의 해체와도 관련된다. 구식민제국이 붕괴에 이르자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봉쇄하고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국가의 노력을 결합시켰던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현대자본주의에서 보이는 새로운 성질은 생산의 사회적성격이 더욱 진전되고 경제및 정치에서 독점의 지배력이 강화된 결과이다.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과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발전이 국독자로 이어지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지연된 나라에서만 불가피하게, 독점자본의 지배에 의해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체제의 형성에서 그 내재된 모순의 심화과정, 나아가 이의 대응형태 (극복형태)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필연적 발생및 그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지위의 현저한 하락속에서, 곧 식민지 체제의 붕괴에 직면하여 이들에 대한 변화된 지배방식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 사회에서의 국가라는 주제하에 유물론적 시각을 이탈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비판으로서 올바른 시각정립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단, 이 글에서는 남한 사회구성체의성격을 구체적으로규명하는 것은 앞서도 밝혔듯이 논외의 범주이며, 가능하다면 일반적 발전경향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물론「특수성」이란 범주를「보편성」으로 부터 분리시켜 사고할 경우, 특수성 그자체도 해명할수 없다는 점과, 그의 실천적 귀결이 계급화해주의로 흘러버릴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Ⅲ. 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의 이행

식민지체제의 붕괴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로 부터 현상화되나, 역으로 식민지체제의 붕괴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한 것임에는 부정할 나위가 없다.

앞서도 밝혔듯이 식민지해방투쟁의 동력은 바로 식민지국의 생산력의 발전에 기인한다. 이로부터 민족자본의 축적과 이를 토대로한 민족 부르조아지의 성장 동시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 강화, 이의 동조세력으로서농민등의 노동계급의 증대등은 식민지 지배체제가 지속될수록, 이에 맞서 격렬한 저항을 하게했던 거대한 힘이었다. 다시말해서 식민지체제붕괴의 1차적 요인은 바로 그 내부로부터 생성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외에 아무런 대안을 갖지못했던 민족해방투쟁세력을 보다 각성시킨 배경은 바로 사회주의의 탄생이었고, 사회주의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기초로하여 **제국주의국과의 압도적 생산력 수준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속을 실제 벗어날수 있게 된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두가지 조건하에서 제국주의간의 대립, 갈등은 식민지지배의 일대공백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식민지의 완전한 독립을 현실화시키게 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서 식민지체제는 전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제국주의는 구식민지제도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이렇듯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후퇴속에서 식민지국이었던 여러 신생국 앞에는 사회주의와의 동맹하에 비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과, 제국주의와의 새로운 관계하에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예속적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두가지 길이 놓이게 된것이다. (실제적으로 전자의 길을 걷게된 나라도 많다)

이에 제국주의는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신생국의 혁명세력을 제거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하에 두기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바로 제국주의의 국제적 지위 하락과 구 식민지체제의 붕괴에 직면하여 제국주의 지배의 유지를 위한 새로운 경제, 정치적 제정책을 신식민주의라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것은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정책을 그들의 불가피한 후퇴로서만 설명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내의 생산제력상승과 금융자본지위의 상승으로 인해 식민지의 경제적 낙후성, 원자재산업의 절대적 우위등이 식민지착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장애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속에서 제국주의는 신생국의 파행적 경제 구조, 낮은 생산력을 이용하여 신식민지적 재편을 더욱 용이하도록 할수 있었던 것이 제국주의의 절대적 생산력의 상승 이점이었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후퇴속에서 전일적 지배와 착취는 포기하였지만 수탈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도록, 신생국 경제의 저열한 조건을 이용하면서 **신생국내의 새로운 지배계급을 구축하여 이를 통하여 간접지배하는 신식민지적 자본주의의 길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결국, 구식민지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제국주의의 독점자본이 이식되어 발전한 것이었던데 반해 신식민지에서는 자본주의의 내생적 발전을 세계체제의 한부분으로써 기능하도록 통제하면서도 일정정도의 발전을 용인하는 것으로써 특징지울수 있겠다.

이에따라 신식민지국에서의주요한 계급대립관계는 예속적성격을 지니는 자본가와 노동자및 민중들의 계급대립으로써 첨예하게진전되고, 제국주의의 정치적, 경제제 억압및 착취에 대한 투쟁도 자국내의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발현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전반적 위기의 대응책으로서의 국독자의 발전과정은 식민지체제의 재편과정을 경과하면서 이루어진는 우연적(?)사실을 보다 명확히알수있다.

어찌되었건, 식민지에서 신식민지로의 이행은 종속국 민중에게 변화된 국제정세및 국내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이해할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이속에서 각나라가 어떠한 특수성을 매개로 이러한일반경향을 관철하는 지 실천적으로 요구하기에이른것이다.

Ⅳ. 식민지 (신식민지)와 국가에대하여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서의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계급과 국가와의 관계가 다루어지지 않을수 없다. 이는 국가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조건을 이해하는 고리가 될수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국가의 개념에 대한 확장˙혹은 축소해석등의 주관주의적 이해들이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 에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문부호를 던지게함으로써, 현재 !비유물론적 시각의 향유를 부채질한 결과가 된 것인바에야, 사적유물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계급적 본질및 그 기능을 다시한번 점검해봄으로써「국가의 존재여부」라는 해괴한 질문의오류를 밝혀내야만 할것이다.

이제,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로부터 출발해 보자.

『국가는 외부로부터 한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며, 또한 마찬가지로 헤겔이 말하는 바「인륜성의 이념의 실재」나「이성의 상및 현실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한 한 사회의 산물이다. 그것은 이 사회가 스스로는 풀수 없는 모순에 말려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스스로는) 일소할 능력이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진영으로 분열되었음을 용인하는 것이다…즉 사회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갈등을 약화시키고 그것을「질서」의 틀 속에 유지시킬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 필요해진다.

사회에서 나와서 스스로를 그 사회위에 정립시키며, 그것으로부터 점점 스스로 외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이러한 권력이 국가이다』

『국가는 사회가 제계급으로 분열하는 곳에서, 또 분열이 발생하는 때에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나타나는 때에 출현한다』즉 이것이 국가의 본질이며, 따라서 계급대립이 소멸함에 따라 국가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계급대립이 존재하는한, 국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 나아가 국가는 어떤 독자적인 실체일수 없으며 단지 지배계급에 의해 이용되는 기구이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사회에 국가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는 곧 식민사회에 계급대립이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고 만다. 만약 계급대립이 있음에도 국가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국가의「개념」을 새로이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않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뒤에 밝히겠지만 국가를 바라보는데 있어서의 협소한 시각과 더불어)직접적으로는 국가의 기능과 본질을 뒤섞어 이해하면서 나오게 되는것이다.

원래 국가의 기능은「내적으로는 피억압계급을 종속시켜두고 착취계급의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고, 외적기능은 그 국가의 영토별 이익을 다른 국가로부터 옹호하거나 또는 다른 국민및 영토를 희생하여 영토를 확장하는것」이었다.

외적 기능은 봉건제하의 분할된 제 지역을 일국적 단위로 통합시켜내는 자본주의에 이르러, 그리하여 시장및 원료공급지를찾아 타국의 국경을˙넘어 나라간의 대립갈등이˙심화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그런데 자본주의발전의 단계가 변화하여 제국주의의 시대로 되고 그에 따른 전세계의 영토적 분할의 결과 발생한 식민지체제에 이르러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에 있어서 국가는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 외적 기능을 상실하며 오히려 내적기능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국가기구의 직접적 지배자는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며 이를통해 제국주의 국가 지배계급의 이해가 식민지에서 실현되게 된다. 이제 국가의 내적기능은 제국주의의 대리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고 이를위해 식민지내의 연합세력을 찾아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게 된다.

이제 앞서의 논의에서 다시한번 입증된바와 같이 국가기능의 일부가 국제적 계급투쟁조건의 변화로 상실된 것으로부터 국가의 존재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엄밀히 말해 국가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 대한 혼돈된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급대립이 존재하는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입증한것 만으로는 구체적인 특정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밝혀내는데 있어서의 무지한 혼란을 치유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이 혼란이 남한 사구체성격을 규정하는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라도 이에대한 논의를 좀더 진척시켜야 하겠다.

이를위해 일제하식민지조선의 경우를 예로하여 당시의 권력을 규정하는 흔히 볼수있는 견해를 비판하여 체계적인 시각정립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만약 권력문제를 도입할 경우(?) 당연히 조선 총독부를 기축으로 하는 일본제국주의의 독재권력기구의 전면적 해명이 요청되며, 나아가 그것이 본질상 부르조아권력으로 간주될수 있는가에 대해 언급되어야…사견으로는 일본천황제권력의 일 분지(分枝)인 조선 총독부는 아무리 그것이 부르조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의 정의를 가능성으로 대체하여 논의의 책임성을 회피하고 혼란을 야기시킨다…필자) 본국일본에 있어서보다는 훨씬 노골적인 야만성을 띠고 한국 민중을 대하는 식민지권력 (?) 이며 본질상 부르조아 권력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당시 일본은 명백히 제국주의단계의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이고 오히려 천황제는「독점자본의 공공연한 폭력적 독재」로서 파시즘의 일 형태였다. 따라서 그것의 일 분지로서의 총독부권력이 부르조아적임을 도출하는데는 반론의 여지조차 없다.

부르조아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이 계급독재이고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폭력성을 띠고 나타날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어떠한 가설도 역사적 사실에 의해 파산되어온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국가의 본질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상과 같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권력의 직접적 구성자나 직접적 기반이 그 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봉건귀족이나 황제가 권력을 구성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봉건권력, 혹은 절대주의권력으로 보게될경우 러시아 짜르당시역시 봉건권력이요 당시 러시아의 계급대립은 봉건영주와 농노의 대립이 되고 마는 것과 같다. 이것은 권력이 행하는 제정책을 그의도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가 어떤 계급에 귀속되는가의 여부가 핵심사안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단계에서 올바로 국가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정책입안자나 개별자본과 국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총자본의 이해, 자본일반의 논리를 집행하는가의 여부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의 전제하에 남한(일제하)의 경우 그것이 식민지전력이었음에도, 오히려 제국주의의 식민지권력이었다는 것으로 인해 계급적으로 부르조아권력이며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상부구조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 전제속에서, 잠정적이나마 한국에는 명백히 국가가 존재하며 그것이 계급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의 부르조아지가「실체가 없다든지」「대리세력」으로 대체할경우 제국주의의 압력이 독점부르조아지를 통해 변용되면서 관철된다는 사실을 설명할수 없게되고「민족해방」의 과제이외의 어느것도 남지 않게된다.

「공동연구」원고를 모읍니다

본보에서는 최근학계및 교내외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제분야(사회과학. 철학. 역사학등) 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정리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상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포함)
▲자격 : 반드시 2인이상 1개연구팀
▲주제 : 자유선택
▲문의및제출처 : 본보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전화 : 965—7048

한반도 분단고착화의 제전, 서울올림픽

한반도긴장완화의 초석은 자주화 투쟁이 핵심고리
공동올림픽 쟁취투쟁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해야

세평

Ⅰ. 글을 시작하며

매시기마다 하나의 정치적 투쟁이 일단락되고 나면 다음 투쟁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립해내고 실천하기까지 일시적인 공동화(?)현상을 빚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작년 6·10투쟁이나 12·16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진 후 제민주세력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수 있다.

그러나 이번 4·26 총선이 예상외의 야권승리로 귀결된 이후에 나타난 민족민주 (이하 민민) 세력들의 투쟁양상은「광주학살 원흉처단을 위한 국정조사권발동」과「양심수 전원석방」그리고「조국통일운동」의 형태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3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군이 선거시기에「남북학생 체육대회」와「국토순례 대행진」을 북한측에 제시함으로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조국통일운동이고, 이것은 1백여일 앞으로 다가온「제24회 서울 올림픽」이 남북 공동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구체화 되었다.

기실 지금까지의 올림픽은 각 개최지 집권자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불운을 맞기도 했다.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에 의해 게르만 민족의 우월감을 심어주는 전리품으로 작용했으며 1962년 멕시코 올림픽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올림픽을 반대하는 학생, 시민 수백명을 살상하면서도 독재정권의「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치루어졌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함에따라 올림픽이 상업시장의 들러리 역할을 할 정도로 타락해간 것은 1984년 L.A올림픽을 통해서 더욱 첨예화되었다. 이제 올림픽은「평화를 위한 세계인의 제전」이라는 궁극적관점이외에도 자본가들과 정치 집권자들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올림픽이 오는 9월 서울의 잠실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된다. 81년 9월30일 바덴바덴에서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정권에 의해 줄기차게 이용되고 있는 올림픽이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와 이것이 현재의 민민세력에게 조국통일 투쟁의 핵심적 고리로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글에서는 위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하여 올림픽 국면속의 민족민주세력의 과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Ⅱ. 서울올림픽이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

올림픽 개최 논의는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진행되었으나 국민들에게는 가려진채 비밀리에 전개되었었다.

당시 남한의 상황은 유신체제와 물가고, 무역수지적자, 부동산 투기의 성행으로 인해 민중들의 반정부 의식이 점차 고양되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반정부 의식을 무마시키고자 올림픽개최 논의가 일어났었지만 결국 10·26사건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광주민중학살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정권은 올림픽 유치가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갖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신식민지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이러한 확산이 맞물리면서 올림픽 유치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국민화합과 외교에 있어서의 대북한 우위 확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스컴을 통해 전 국민에게「올림픽의 외형적 화려함에 도취할 것」을 주입하고 있던 정권으로서는 올림픽이 갖는 의미가 첫째, 올림픽이「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활이 걸린 행사」로

둘째, 정권은 올림픽을 민민세력 탄압의 가장 좋은이유로 악용할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발상을 이어받은 현정권은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에게「올림픽에 대한 분홍빛환상」을 심어왔고,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논리하에 민민세력을 탄압하는 근거로삼아왔던것이다.

◇한반도의 반쪽을 남겨둔채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편 올림픽이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

애초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소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반하는 신식민지로서 존재하여 왔고 미국은 그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해오는 동안, 이에대한 세계 민주주의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88올림픽의 서울 단독 개최는 바로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반도가 갈라진 두개의 나라임을 세계에 공표하는「의식」임과 더불어 분단고착화 전략에대해 비난하는 세계민주주의자들을 회석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를통하여 미국은 그들이 이미 제시한바 있는 남북교차 승인 문제를 보다 수월히 등장시켜서 분단 고착을 공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안전을 뒷받침한다는 명목하에 한·미·일의 군사유착을 강화, 남한군사정권에 대한 안정지원을 하려고 한다.

미국에게 있어 88올림픽이 갖는 또하나의 의미는 소위「국제화시대」의 명목으로 자행되는 제국주의적 본질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80년이후 미국은 수입개방압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남한 민중들의 자립경제를 도산시키면서 남한을 자국의상품시장화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OOC는『이번 올림픽으로 한국경제는 일본이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한이후 선진국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이며, 이미 올림픽만으로도 흑자를 낼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그들의 발전은 한국전쟁, 올림픽 개최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특수상황에서 기인하였던 것으로써 한국과는 여러면에서 상황이 달랐다. 또한 올림픽 흑자예상부분도 이미 TV중계권료 협상에서 실패했던 것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준비자금을 민중들의 세금과 SLOOC의 일체의 상업주의적 행위속에서 확보해내고 있는것으로 보아 그것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결국 올림픽이 한반도 남쪽 땅에서 치루어질 경우 군사정권과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정권의 정당성을 대외에 조장, 제국주의의 완전한 한국경제예속, 반공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하는 민족민주세력의 탄압을 통해 자신들의 유지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민중들은 경제내외적 구조의 끊임없는 착취와 남북 민족대단결 의지의 상실이라는 이중적 억압의 나라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간과 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Ⅲ. 올림픽 개최를 위한 민족 민주세력의 움직임

한반도에서의 올림픽이 군사정권과 미국 그리고 민민세력에게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고리로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정권이 행하고 있는 올림픽에 대한 행위가 민민세력들에게는 반민족적, 반민중적행위로서 나타나는바. 조국통일을 위해「공동 올림픽 쟁취」라는 주장을 낳게하였다.

지난 2월29일 KNCC(한국기독교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과 이후 김중기군의 대북(對北)제의가 사회에 통일염원의 불길을 당기는 시발점이 되었으며「서총연」과「김세진, 이재호열사 추모사업회」등이 주축이 되어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월14일에는 전국 5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고려대에 모여「6·10 남북한 청년 학생 회담 성사및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범시민·학생결의대회」를 갖고 6월5일까지 남과 북 각각 학생회담 대표단을 구성하여 6월10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5월15일 조성만열사가 명동성당에서 할복투신하며 남긴 올림픽이 공동개최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막아져서는 안된다는 유서를 통해 그동안 통일에 대해 그 중요상을 인지하지못했던 대중들의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조국통일추진운동 속에서「올림픽 공동개최」가 구체적 실천의 양태로 나타난 것은 5월13일 발족한「민족화합 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 준비위원회」를 통해서이다.「불교정토구현승가회」,「중앙승가대학학생연합회」등 8개의 연합회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준비위원회는『이번 제24회 국제 올림픽 대회를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통일에의 초석을 닦아 나가는 통일올림픽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제24회 국제 올림픽 대회는 민족화합, 평화, 민주를 실현시키는 행사가 되어야 하고, 남북체육회담은 공동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자들은 겸허한 자세와 남북한의 접촉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19일에는 동국대에서「민주화합 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를 결성하고 현재는「공동올림픽개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한 실천적 모습의 초석으로서 공식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여타 재야단체, 학생들이 외화된 모습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5월28일에는「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민통련」「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정토구현 전국승가회」「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등 67개 재야, 청년학생, 종교단체가 공동으로「남북 공동올림픽과 6·10남북학생회담의성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발표하기에 이르렀다.

Ⅳ. 올림픽 국면에서의 민족민주세력의 과제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때 현시점에서 올림픽을 거부한다는것은 옳지못한 사고이다. 오히려 민민세력들이 중심이되어 조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위해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

올림픽의 단독개최는 한반도가 갈라진 두개의 나라임을 세계에 공표하는 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반 움직임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듯 하다. 이러한 것은 먼저 정권의 올림픽 환상조성과 민민세력에 대한 좌경·용공 논리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조국통일이라는 대명제속에서 공동올림픽을 제기하는 것이 현시기 정권측과 미국의 음모에 파열구를 내는 계기가 될수 있음에도 이것을 구체적 행위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민민세력에게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공동올림픽 쟁취투쟁」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것은 올림픽이 내걸고있는「비정치성」과「평화제전」이라는말이 대중들에게 비판적 시각없이 그대로 주입되고 있는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반공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레드 컴플렉스(red complex)를 개조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공동올림픽 개최 요구투쟁」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우리는 왜 공동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할수있는 자료집의 발간, 토론회, 올림픽개최에대한 남북한의 공식입장을 비교하고, 북한 바로알기의 활발한 홍보작업, 올림픽 공동개최를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공동올림픽」을 성사시키기위한 구체적 논의로서「남북공동 올림픽 조직위원회 구성」과「단일팀 구성」등을 제시하고 이것을 정권측이 북한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촉구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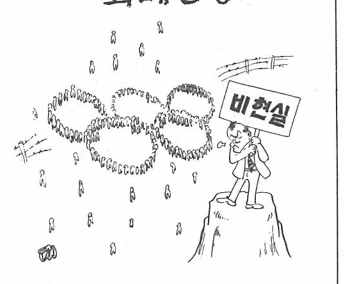
실제적으로 정권측도 북한이 참가한다면 몇개의 종목을 평양에서 치룰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이것이 지난 86년「남북 문화교류」때와 같이 정권측에 이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민세력은「공동올림픽」의 추진과정에서 주체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오는 6월10일판문점에서 열고자 하는「남북학생체육회담」의 성사여부 내지는 이를 위한 강고한 투쟁의 모습이 이후 전개될「공동올림픽쟁취 투쟁」의 유력한 토대가 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뿌리를 두고 두갈래의 가지로 나뉘어진 채 분단조국 44년을 맞는 우리에게「88서울올림픽 공동개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의미한다. 또한 더 나아가 민족의 자주화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핵심고리임을 각인함으로써 대중들의 통일의지를 한층더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 철 〈정치 평론가〉

외대만평



당신만 없으면 가능하지

기자의 눈

고시반원의 절박한 외침

『지난 8년간 왕산고시반에 대한 학교당국의 무관심과 부당한 처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읍니다. 똑같은등록금을 내고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원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학교는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지난 5월26일(목) 부터 용인캠퍼스고시반학생 18명 전원이 고시반「청람재」앞에 집기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서울캠퍼스 고시반과의 동등한 대우, 학생수에 비례한 실원증원등을 요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밝힌 주장이다.

물론, 5월대동제의 참의미를 저버린채 대동에 이탈을 감행한(?) 고시반원들의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허나 반대급부로 이번 고시반원들의 농성은 고시반의 절박한 상황을 다시한번 인지시키고 있다.

현재 왕산고시반의 경우 외시8명, 행시5명, C. P. A 4명, 사시1명 등 총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시설면에서 서울캠퍼스고시반의 외시, 행시, C.P.A, 사시반은 독자적인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 6백70만원씩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반하여 왕산고시반은 4개반이 모두 통합하여 6백70만원의 예산과 통합연구실 한개만을 사용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좁은 공간에 18명씩이나 기숙해 위생, 면학분위기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반 통합으로 STUDY, 특강운영등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목공소가 근접해 있어 소음등으로 인해 고시반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도 미비한 상태이다.

결국 이런 열악한 환경과 학교측의그동안의 무성의한 태도가 농성이라는 방법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고래(古來)에는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 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굿굿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허나 요즘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보매체의 발달로 학문을 탐구하는 데보다 나은 문화적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좋은성과를 기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경제적인 뒷받침은 필수불가결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한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공부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라는 한 고시반원의 절박한 외침에서 알수있듯이 학교측은 이번 고시반원들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가 아닌 이상 그 어느때보다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강병준 기자>

“비온다 뚜껑 덮어라”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바구니를 장독뚜껑으로 쓸 수야 있겠읍니까?
欲速不達이란 말이 있듯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아무리 의욕이 앞선다 할지라도
順理를 따르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그르칠 수가 있읍니다.

우리의 생각과 行動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지켜나갈 때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社會가
건설될 것입니다.

바구니 하나를 제자리에 놓듯
三養社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산업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
60여년을 한결같이 노력해 오고 있읍니다.

三養社
- 纖維部門 : 폴리에스텔SF, 폴리에스텔FIL, 絹紡糸
- 食品部門 : 雪糖, 配合飼料, 水産物, 畜産, 포도糖, 高果糖, 밀가루
- 化学·機械部門 : 이온交換樹脂, TPA, 엔지니어링플라스틱, PET-BOTTLE, 産業機械

분단극복과 통일문화 <6>

통일을 위한 문화의 실천적논의

문화주의적, 단계론적 오류의 극복과 정치적 과제에 선차적으로 충실해야

이 문 선 〈문학평론가〉

글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분단직전 한반도의 문화흐름
3. 한국전쟁후 문화의 이질화와 민중문화
4. 북한문화의 이해
   - ①문화노선의 기본틀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 ②해방후 문화정책과 문화혁명
5. 분단극복을 위한 문화의 새로운 논의
6. 통일을 위한 문화, 예술운동의 위상

Ⅰ.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

미리 밝혀 두건대 이글은 그 부제와는 달리 「새로운논의」는 아니다. 이 글은 단지 문화 내지는 문화운동에 관한 기왕의 논의들, 특히 연재된 앞 글들에서의 논의들에 기대면서 통일과 문화와의 「연관」 자체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살펴봄의 미덕이지닌 가능태는 정치·사상적 입장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문화에 관한 입장에 있어서도 가급적 좌우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는 필자의 의도에 있는 것이다.

우선 통일 논의에 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가를 따져보자. 크게 보아서, 즉 우리가 당면한 변혁과제의 주체와 관련지어서 민중은 물질적 생산의 직접 담당자요, 역사 변혁의 주체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상·문화·기술의 창조적 담당 주체이자 그 생산적 소비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문화는,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표현들로 정의하건 간에 현존하는 지배 질서—신식민적 종속 아래에서의 국가독점/반(半) 자본주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현존하는 문화는 신식민지적 지배와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그런 한에서 본원적으로 매판성과 계급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변혁운동의 한부분/부문으로서의 문화운동은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신식민지, 자본주의 문화를 타파함을 제 고유의 임무로 삼게된다.

통일 혹은 반외세 자주화를 전면적으로 목표삼는 한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은 이렇듯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서 문화의 적극적 의미를 곱씹어 볼수도 있을 것이다. 즉 문화란 정치·경제·군사·사회적 현실의 단순한 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일차적으로 그 현실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생산적·대상적 행위와 활동을 통해 모든 국면에서 외화되고 발현되는 바의 것이다. 흔히 말하듯 문화란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이며, 사회적 의식과 각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총체적 연관이고 과정이며 현실이다. 흔히 오해되는 것과는 달리, 문화란 단순히 상부구조는 아니다.

아뭏든 이러한 문화의 적극적 의미는 통일 논의의 문화적 접근을 뒷받침한다. 통일이 우리 현실의 총체적 과제인 만큼 문화적 변혁의 현실적 외연도 총체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 문화 특유의 탄력성 내지는 총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고질적인 문화주의에 빠지기 쉽다. 통일과 관련지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논의되는 바의 통일이 광의의 「조국통일운동」이든 아니면 당면과제로서의 협의의 「조국통일촉진운동」이든 문화주의라는 함정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분단을 계급모순이 국가주권의 대립적 형태로 현상화한 체제간 모순으로 보든, 혹은 민족모순의 한 현상형태로서 한반도적인 특수한 형태로 보든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치 우선의 입장에 서야 한다. 즉 통일에 관한 문화적 접근은 민족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든, 계급 모순 타파를 강조하든간에 통일에 관한 정치적 접근에 복속된다. 따라서 통일 방안에 있어서도, 경제·문화 교류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단계론적 발상이나 평화통일 내지는 한반도 내 평화정착의 문제를 분단의 고착화 내지는 현상유지의 의도에서 다루는 일체의 반민족적 입장에 대해 우리는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Ⅱ. 문화운동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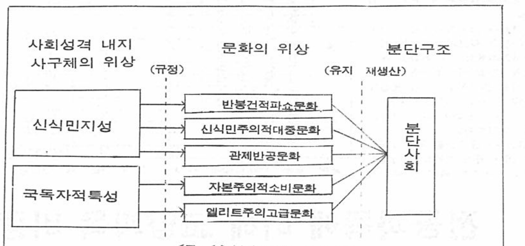
물론 통일에 관한 정치적 해결을 최우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서, 통일과 문화의 연관이라는 구체적인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다.

우선 통일 문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현실적·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좁은 의미의 조국통일촉진운동에 관해서만 말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볼 때 과연 민중권력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통일 문제의 거론이 과연 유의미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법도 하다.

설령 전술적으로 대중선전·선동의 내용적 고리로서 통일 문제를, 그것도 「대중적으로」 거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분단극복의 구체적 과업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물론 혹자는 조국통일촉진운동은 반외세 자주화운동의 하위 범주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것이다.

이에대해 필자는 예컨대 「민중의 정당적 형태의 정치적 진출을 통한 혁명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입장에서서 반박할 처지가 아니므로 딱히 대꾸하기 곤란하지만, 반박하게 말해서, 전략적 차원의 것이든 전술적 차원의 것이든 최근의 통일문제의 거론은 굳이 바로 위의 정치적 입장에서의 함축을 지니지 않은 통상적 의미의 민중권력이 실재적으로 수립되지않은 현단계에서 한편으로는 공허한 관념적 급진주의로 빠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사이의 까다로운 연관의 실천적·이론적 해명에서 도피하는 기회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



<표—1>분단문화의 내적구조

통일이 민족의 최대 지상과제인한 그에 관한 논의가 방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통일을 당위적·단계론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듯이, 그것을 공허하게 다뤄서도 아니된다.

반면에 문화주의에 대한 경계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여 청산주의적 편향에 빠져서도 곤란하다. 앞서 말한 민중정권의 성격이 민족자주 정권이든 민중민주 정권이든간에, 통일을 향한 전체 운동에서의 적절한 역량 편성의 과제는 그것대로 다루면서도, 또한 통일 문제 해결의 정치적 우선성에 바탕을 둔 문화운동의 기여도 그나름대로 고려하면서 문화 특유의, 문화운동 고유의 영역과 역할을 슬기롭게 인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제반파쇼의 입장에서든 반제반봉건의 입장에서든 통일 정책의 필수적 요소로서의 문화의 독자성과 문화운동의 존재이유를 잘 헤아리고 그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Ⅲ. 현단계문화의 실천적 과제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은 근로민중의 일반지식및 기술수준을 포함한 문화적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민족의식과 민족적자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성원을 발전된 민중문화, 통일 민족문화의 담당주체로 만들어나가는 운동이다.

신식민지 자본주의가 오염시킨 인간을 통해, 즉 외세와 독점자본/군사파쇼의 문화적 노예를 통해 통일에 도달하려면 문화와 사상속의 지배계급의 요소를 척결해나가는 (문화) 투쟁을 통해 단련시켜야 한다. 이러한 단련과정이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이다.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의 참된 알맹이는 역시 『문화가 소수의 지배계급과 전문가의 손으로부터 참으로 대중/민중적으로 되어, 근로민중이 민족문화의 창조와 향유의 주인이 된다』는 원칙에 있다. 여기에 위에서의 논의를 보탠다면,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은 결코 문화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당면 변혁과제에 정치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된다.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의 동력은 민중 자신의 문화적 주체역량과 현존 지배문화의 반민중적·반민족적 성격 사이의 적대적 모순이다.이 모순을 통일민족문화를 향한 남북한 문화의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그 이질성과 동질성 사이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 사회의 지배문화는 이제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다음의 몇가지 성격을 갖는다. 그 큰 갈래 중의 하나는 사회성격 내지는 사회구성체상의 신식민지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봉건적 파쇼문화, 신식민주의적 대중문화, 관제 반공문화로 나뉜다.

다른 큰 갈래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와 엘리트주의 고급문화를 포괄하며 우리 사회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 특성과 맞물려있다. 이렇게 개념화되는 지배문화를 한마디로 분단문화로 부를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단문화는 일제 침략에 의한 전통적 공동체문화의 파괴와 일본을 통한 서구제국주의 문화의 굴절된 이식, 그리고 민족과 조국 분단의 성립과 그 고착화로인한 양키문화·GI문화의 범람 등과 같은 역사적 경로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남한 자본주의사회의 독점화 내지는 국가독점화와 관련하여 제국주의 대중소비문화로부터 이식된 문화산업이 성립하고 문화상품이 그 자체로 자본의 논리와 운동법칙에 의해 생산·유통·소비되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체 안의 각계급의 물질적 소비 수준과 문화적 특권의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파쇼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중조작에 의해 전사회에 강압적으로 부과되면서 신식민지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온존·유지·강화시키는 노릇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표—1 참조)

이러한 분단문화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그리고 대중의 일상적 생활영역과 감수성에 있어서 관철되고 있으며 또한 문화의 제반하위영역—언론·출판·학문·예술·교육·종교 등에서도 그 신식민지성과 부르조아성을 여지없이 내보이고 있다.

한편 항일 혁명전통과 인간(근로 민중) 중심의 자주적사상에 바탕을 두었다고 말해지는 북한의 문화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로 요약된다고 한다. 전문연구가에 의하면(본보 489호 참조), 그 기본요소는 당파성, 계급성, 인민성이며 대체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예술 장르의 면에서 좁혀 말한다면 가극이나 영화같은 비교적 대중적 양식이 발달해 있거나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고, 특히 자체 내의 평가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는 세계적 수준에 달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1930년대 일제하 상업주의 통속문화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엿보일수도 있을 것이고, 또논자(論者)에따라서는 사회주의적 집단지도 체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습제와 우상화 정책이 문화 전면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질수도 있다. (물론 항일 혁명전통과 현존 지도역량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북한 문화의 특색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근로 민중의 전투적 반제의식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요에서 보여지듯이 혁명성과 대중성의 일치(즉 혁명가요=대중가요)라는 점이라고 한다.

Ⅳ. 당면변혁과제와 통일민족문화 형성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이 어떻게 극복되고 어떻게 민족적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필자 역시 상당수의 논자처럼 그 구체적 실천 노력의 항목들을 제대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립·제기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입장이지만 우선 우리가 극복할 이질성과 획득할 동질성이 문화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두자. 문화주의적 오류나 단계론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적 노력 역시 당면 변혁의 일반 정치적 과제에 선차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 민중적 민족문화를 위해 현존하는 사상적 입장의 차이를 긍정적 입장에서 발전시키되, 최소강령의 최대공약적 내용에 바탕을 두고 통일전선, 혹은문화정책의 정립으로 나아가야

이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말할수 있지만 특히 빠뜨리지 말아야 할것은 무엇보다 북한 사회의 전모와 실상을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문화(운동) 특유의 정치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 정치과제로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쟁취해나가는 것이 된다. 문화의 측면에서는 「문화의 민주화」로 표현될 것이다.

문화 자체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 말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민족 전체의 정서적 동질감의 회복이 최대의 과제이다. 물론 「정서」를 자칫 잘못 강조하게 되면,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문화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정치·경제·군사적 자주성의 확보가 문화적 종속 극복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나라·국토에 살아온 단일민족으로서 혈통·언어·풍습 등에서 본질적이고 강력한 민족 동질성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다른 체제·토대·이념상의 차이와 특히 남한 내부의 계급적 차이에 따른 상이한 사상·정견·당파·신앙의 차별성에 의한 이질성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은 분단 체제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분단을 재생산시키고 있다. 분명히 이런 이질적 요소의 근본적 청산은 통일된 자주적 민족국가, 혹은 민중민주공화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통일 이전에는 부분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특히 경제·문화교류 우선의 단계론적 통일방안은 소모적이며, 그러는 사이에 이질화가 가중되고 분단 체제가 영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통일 이후의 새로운 문화혁명과는 분명히 다르고 낮은 단계에서의 통일에 대한 문화운동의 기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상적으로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이 점차 강화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동질성을 향한 노력과 통일된 자주적 민족국가 수립에의 민족적 염망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기도 하다. 비록 현재로서는 그 이질화의 정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거나 혹은 분단·반공·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 측정 자체가 차단·왜곡되어 있다고 해도, 그럴수록 동질성 형성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예컨대 남북한 문화교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처럼 관주도의 단계론적 통일방안의일환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제까지 남한에서는 고급엘리트문화, 관제 민속문화, 상업적 대중문화가 북한 동포에게 남한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기능했고 또 이에 의한 교류가 냉전 구조와 분단 문화를 강화시키게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족문화라는 대승적 목표아래 남한의 민족문화와 북한의 민족문화가 서로 만나서 통일민족문화를 형성해내야 한다.

찢긴 말이 만나야 하고, 왜곡된 감수성이 만나야 하며, 억압된 민족감정이 만나야한다. 이렇게 만나 만들어진 통일민족문화의 본질적 요소는 대체로 한반도 전체의 역사성과 사회성의 긍정적 측면이 비판적으로 섭취된 것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노동·생활·투쟁과정의 집단성·생활성·생산성이 최고도로 확보·발전된 것이어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염된 감수성과 정서의 혁명적·문화적 교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남한의 민중적 민족문화로 논의의 외연을 좁힌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현존하는 정치·사상적 입장의 차이는 그것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인측면에서 그 쟁투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되, 최소강령의최대공약적 내용에 바탕을두어 통일전선 혹은 그 맹아적틀의 문화정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립해내야 한다.

예컨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강령(87·3·31)에는 「10. 반민중적 대중문화를 청산하고 민중적 민족문화를 창달한다」「11. 반민주적 교육구조를 청산하고 민주·민족교육을 실현한다」는 강령들이 있다. 우리는 이 강령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적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언론·출판·학문·예술·교육·종교등의 모든 면에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 대강의 방향은 냉전 구조및 반공 이데올로기의 반민족적·반민중적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분야를 본보기로 삼아 그 구체적 과제에 대해 언급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 작품 창작에 있어서, 반외세의 실체와 본질을 정면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창작지침이 정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한 작품이 당대를 다루든지 혹은 해방직전 내지 전후의 역사적 시대를 다루든지 분단의 주범이며 분단고착화의 지지 세력인 강대국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외세와 더불어 이에 결탁한 국내의 반민족적·반민중적 세력에 대한 형상화도 보다 전투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문화운동 자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을 발전시키고 그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물론 이 일을 좌우 편향에 빠지지 않고 수행해내기란 어렵다.이것은 줄타기와 같다.

대중의 갈채를 받고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줄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낡아빠진 원론적 구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역시 민중적 민족문화운동은 「대중으로부터 대중에게로」라는 원칙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유학정보세미나

미국·호주·일본을중심으로한 제2자 유학세미나를 아래와같이 개최하오니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내 용 : ·유학절차
   - ·해당국 대학실정 및 학교선정
   - ·국내전공 및 취득학점의 인정범위
   - ·편·입학 허가절차 및 조건
   - ·현지에서의 학비조달
   - ·유학생활의 제문제와 생활적응
   - ·장학금 획득방법
2. 일 시 : 1988년 6월 2일(목)
   - ·일본 : 14시~14시50분
   - ·호주 : 15시~15시50분
   - ·미국 : 16시~17시
3. 장 소 : 용인캠퍼스 교양관 2201호 (2층 계단강의실)
4. 담당교수 : 서병완(용인캠퍼스 교무처장)외
5. 실시방법 : 강의, 질의응답, 토의, 자료제공
5. 기 타 : 「해외문화 교육정보센터」 (Green Tree)등 유관기관에서 유학관련 전문 카운슬러가 참석하여 설명 및 토론에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함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軍·행정병 모집
자격∥각군 17~26세 고졸이상(해군중졸이상)
특전∥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전형을 거쳐입대(복학조절가능)(교련혜택받음)
펜글씨 차트·도안
관인 인성서예 차트 학원
▲각과초보자환영 기초부터 개인지도식으로 지도함
▲수료후 취업희망자 각기관 취업알선
종로1가버스정류장 부근 제과 2층
732-5346
735-3771

All Faculty Members have post-graduate training abroad!!
외국어의 명문
학생모집
●동시통역과정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2년 수료후 해외연수 1년)
본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의 빛나는 장래를 보장합니다.
●LANGUAGE COURSE
영어, 불어, 일어(Conversation과 L/C)
Native Speaker들의 집중교육, 현장실습 과정과 같음
●TOEFL
L/C, Structure, W/E, Vocabulary, R/C, Essay,
쉽고 재미있게 600점 이상을 목표로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음. TOEFL 정보, 유학, 취직시험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ABC News(Nightline) 청취반
●Cable Network News (CNN)
Listening의 최고봉!!
본 강의 수강으로 청취력 완전해결
●Native Speaker 회화반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아어
회화를 자유자재로 본국인과 같이…
●Donahue, 60minutes, Drama반
흥미, 감동, 긴장의 연속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취력 향상
●영문법
문법, 독해, 작문의 재정리
(초급, 중급 그급반으로 기초부터 하실 수 있음)
●유학준비반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유학시험 철저 준비과정)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불란서, 독일, 대만 유학 무료상담
●대학원진학반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각 대학별 출제문제 및 예상문제 철저 분석강의)
각 대학원 입학요강 무료안내
※토요모임
토요영화감상회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아어)
TOEFL Study Club, 영어회화 클럽, 연극클럽
일어모임, 불어연구회, 외국어노래회
(수강생은 상기 모임중 어느 것이나 가입할 수 있읍니다)
549-1536/5117
*미국통역협회(A.T.A)산하단체
亞細亞外國語學院

운전을 배웁시다
20년 전통·성실한 교육
특전
①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②탁아소 무료 운영
③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④외국(이민) 출국자 특별환영
⑤실습시간 자유선택
⑥통학버스 무료 운행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 매주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633) 0036~7 3962 3963
西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 2342 2343
北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2861~5

외국어교육의선구자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인영어회화·S.L.E. (각반 12명/강사전원 학사 석사출신 미국인/10달완성)·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Active회화
ENGLISH영작, 문법·TIME·영어순해·TOEFL·종합영어 영어독해·성문기본영어·영어실력기초·KOREA TIMES VOCABULARY·AFKN청취·TOEFL L/C ·무역영어
S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표준일본어·NHK일어청취·일어통역가이드·프랑스어·프랑스인회화·독어·독일인회화·중국어·중국인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어학교수법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철권발급·수료증 취득 PLACEMENT TEST를거친LEVEL배정.
274-4000, 274-8821, 8822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종로2가파고다공원건너편흰빌딩
I CAN DO
파고다 외국어학원

중흥외대를 위한 모색

커리큘럼의 수정을 요한다

<6>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공과목에 비해 교양과목 비중 낮은편

부전공제도 잘 운영되나 사회적인정 어려워

Ⅰ. 머리말

80년이후부터 점차 논의되기 시작한 교과·교육과정의 문제는 최근들어 각 대학의 학원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시대적인 조류, 학문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고려치 않은 채 10여년전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이데올로기교육에 있어서 역시 주입식 교육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공과 교양교육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교육과 전인교육의 2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는 적지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최근 교수들의 성역(聖域)으로만 여겨졌던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주장의 요구는 단순히 민주화바람에 편승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간의 누적됐던 많은 모순점의 해결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학생들의 학문적 욕구에서 나온것이라 볼수있다.

본교 역시 많은 과의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수의 수업방법과 교수의 성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 어학계열 교과과정의 교양과목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과 함께 양캠퍼스의 중복학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1. 전공교육과정의 문제점

전공교육과정은 전문교육을 위한 기본틀위에서 학문, 사회, 국제정치변화의 조류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또 그 기본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강의방법의 개발과 과정연구를 통해 점차 발전하는 교과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어학계열의 경우 언어의 변화나 연구실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학문이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에 비추어볼때 본교어학계열의 커리큘럼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10여년이 지난 교과과정에 수정작업이 가해지지 않는다거나 타교에 비해 전공학점의 배점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동구어계열을 제외한 어문계열의 전공이수학점이 70학점인데 이는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많은편이다. 언어구사능력과 감독능력의 함양을 위해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선택및 교양과목을 감안한다면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전체커리큘럼에 있어서도 교무처가 매년 학과별로 개선방안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과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학부의 커리큘럼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분야의 학문적 경험을 줄 수 있는가에 큰 의의를 둔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신설, 증설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교과과정의 반복에서 올수있는 식상함으로인한 학생들의 개선요구도 있다.특수 어학과의 경우 언어실습과정이 4~5학기에 걸쳐 계속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3학기 과정으로 줄이고 기타 강좌의 증설을 피할 수 있을것이다.

이 외에도 3, 4학년때의 전공선택폭이 적다는 지적을 할수 있는데 정원이 적거나 교수진이 부족한 과의 경우에 특히 개설강좌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강의실 부족과 교수난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강좌를 많이 개선해도 학생들은 학문적 호기심보다「점수잘주는 교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강좌가 폐강된다. 특히 군소학과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말해 학교로서도 어쩔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표1>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외국어대
졸업 이수학점	140	140	140	140	140
전공학점	63	51	58	42~48	64~70
부전공학점	24 (선택)	21 (선택)	21 (선택)	21 (필수)	24~32 (선택)
자유선택 학점		20~47	16		부전공대체
교양학점	42	42~69	45	50~60	44~50
교양필수과목수	7	11	16	26	14
교양선택과목수	42	20	51	28	42

이외에 학부의 전공커리큘럼에서 나타나는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학부와 대학원 커리큘럼의 연계 부족을 들 수 있다.

정치, 경제의 일반에 관한기초교육이 부족해 대학원과정의 수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어 이의해결을 위해서는 각학문분야의 학부, 대학원간의 연계성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2. 부전공제도의 활용

본교의 부전공 제도는 하나의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타대학의 부전공제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학점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전공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으며, 두번째로는 필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해야 하는학점만큼을 타교과목에서 자유선택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전공을 선택제도로 하면서도 전공과목 수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다. 즉 서울대의 예를들면 부전공과정 선택자는 전공이수학점인 63학점중 48학점만 이수하면되게 돼있으며, 서강대에서는부전공21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전공은 45학점정도만 취득하게되어있어 전공교육의 부족이라는 취약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부전공제도가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진출시 이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편이다. 전용을 바탕으로 취업한 후 부전공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전공을 통해 전공이나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문을 계속하고자하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전공외국어를 바탕으로 제2의 전공탐구, 혹은 외국어를 부전공으로 하여 자신의 전공학습을 보다 깊게할 수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3. 교양부족 외대생

본교의 교양과정은 철학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사상계등 6분야의 교양선택과정과 14개과목의 교양필수과정이 있다. 단대별로 44~50학점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타대학과 숫자상으로 비교하여 그리 적은 편은 아니다.

고려대의 경우 최고69학점을 취득해야하는 단과대도 있지만 이중 대부분이 계열기초과정이기때문에 사실상 교양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강대는 50~60학점의 매우 많은 학점을 교양에서 취득해야 하지만 이와관련해 전공이수학점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취약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부전공 대체로 활용되는 자유선택과정이 고려대와 연세대는 독립과정으로 설정해 두고있어 사실상 교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수있다.

또한 본교의 경우 전공, 부전공, 교양학점의 합이 1백40학점이기 때문에 타 강좌를 수강하기가 힘들지만 다른 대부분의 대학은 최소학점만을 규정하고 있어 졸업이수를 위한 1백40학점중 10~20학점에 대해 학생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를 들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것이다.

Ⅲ. 지역학의 가능성

지역학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기란 어렵지만 대체로「해당국의 문화전반에 관한 연구」란 의미로서 통용되고 있다.

지역학과에 대한 논의는 작년 학원민주화 기간중 용인캠퍼스 학생들에 의해 지역학과 개편이 요구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현재 서양어문대학과 동양어문대학은 자체적으로「서양학대학」「동양학대학」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지역학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복학과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또한 학문적요구로서도 필요한 것으로 학생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측에서는 교수·강사진의 확보가 어렵다는점과 현재커리큘럼에 지역학을 추가할필요가없다는 점을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지역학 수강역시 언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표2>를 통해살펴보면 13개 과가 지역학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지역학과로의 개편움직임이있는 용인캠퍼스의 학과중에서 인도어과만이 지역학전공 교수가 없는 상태지만 이는 교수 강사진 약간명을 유치하여 지역학 교과과정을 만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나머지 폴란드어과등 동구어계열학과들은「동구어대학」을 신설하여 편재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교수·강사의 유치에 따른 재정적 문제가 있기는 하나 중요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이와같은것은 불가피한 형편이다.

Ⅳ. 미국식 교육, 주입식 교육

사회과학계열(법대제외) 교수중 90%이상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대일람참조) 일부 교수들이 강의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미국식방법을 택하거나 학생과의 면담과 지도교육시 유학당시의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보다 넓은 세계적 안목을 갖게할수도 있으나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한 지도가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제반 과정이 미국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수방법에 있어서 같은 문제점을 안게 될것이다.

이에대한 대안을 마땅히 제시하지 못함은 아직도 미국의 문화, 교육적 영향이 크기때문이며 이의 궁극적 해결은 자체적 연구과정 개발과 교육의 자주성 확립을 통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표2>

	과명	어문학 전공교수	지역학강의 가능교수	비고
서양어계열	영어과	22	6	가능
	불어과	16	1	
	독어과	15		
	노어과	6	4	가능
	서어과	17	2	가능
	이태리어과	3	2	가능
	포루투갈어과	4	2	가능
	화란어과	3		
	스웨덴어과	3		
	폴란드어과	1		
	루마니아어과	1	1	
	체코어과	1		
	헝거리어과	1		
	유고어과	1		
동양어계열	중국어과	7	4	가능
	일본어과	12	2	가능
	마인어과	1	6	가능
	아랍어과	3	7	가능
	태국어과	2	4	가능
	베트남어과	1	2	가능
	인도어과	4		
	터어키어과	1	3	가능
	이란어과	1	2	가능
	스와힐리어과	3		
계		129	51	13개과가능

▲본 표는 외대일람에 게재된 교수명단을 참조한것임

이외에도 비단 본교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니지만 주입식교육의 모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종래의 제도교육과 다를바 없는 주입·강의식 교육이 계속됨으로 인해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4학년과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과대 인원의 학생과 소수의 교수사이에서 전문교육의 실시는 힘들다고 여겨진다. 특히 본교의 경우 학생 1만2천여명에 교수(전임강사이상)2백30여명으로 학생52명당 교수 1명꼴이 되는데 이를 굳이 외국과의 비교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Ⅴ. 교과·교육 과정 개선의 문제점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오래된 것을 계속사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언어나 문학의 조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의 과학화, 합리화를 감안할 때 새로운 교과 과정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전공선택및 교양의 폭을 늘림으로써, 학생들이 이후 학문을 보다 깊게 탐구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기초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적 장애물은 학교공간의 협소함이다. 만약 모든 과가 3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하나씩만 늘린다면 약 1백80시간의 강의를 소화할수 있는 강의실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강의실 사용율이 75%(이상적 강의실 사용율 50%)인 본교의 형편을 감안할 때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지적됐던 학부와 대학원간의 커리큘럼 연계성 역시 전체교육과정의 과학화를 위해 보다더 깊게 연구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전공, 부전공, 교양의 학점 배율도 극한선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하한선을 정한다음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교과·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학교의 특수성과 사회제도적 모순점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원내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학교측은 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언제까지나 학교공간의 부족이나 재단부실의 문제를「어쩔수 없는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외대의 질적하락」이라는 점을 외대인 모두가 공유하면서도 교수는 학생의 탓으로, 학생은 교수의 탓으로만돌리는 것은 진정한 발전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학교육, 전문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커리큘럼은 교수의 고유영역도 아니며, 학생만의 개선요구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의 제도적장치 마련을 위한 학교측의 구체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획부>

글 싣는 차례

Ⅰ. 시리즈를 시작하며
Ⅱ.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안
Ⅲ.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살펴본다
Ⅳ. 용인캠퍼스, 제2캠퍼스인가 분교인가
  1. 행정체제 격상및 개선되어야할 복지문제
  2. 제2캠퍼스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몇가지 방법
Ⅴ. 고전(古典)이된 커리큘럼 전면적 수정을 요한다
Ⅵ. 교수·강사진유치와 이를 위한 복지개선

알 림

지난 491호(5월17일자) 기획시리즈 다섯번째「제2캠퍼스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몇가지 방법」중<표>에서 동양어문대학 스와힐리어과가 빠졌기에「아프리카(지역)」학과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 대 학 보

바로 여기

가깝고도 먼곳, 학생처를 찾아서

학교의 여러 행정기관중에서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곳중의 하나가 학생처이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에게 학생처는「학생들의 감시기관」이라는 과거의 인식이 계속 팽배되어 있어 학생처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학생들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오히려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학생처는 학생과, 장학과, 여학생감실, 학생보건과의 4개부서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학생과는 써클의 등록허가와 재정지원, 부직알선, 학자금 융자, 취업, 상벌관계의 업무를 맡고, 장학과에서는 장학금, 자비유학, 연수, 병사, 총학생회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과는 학생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1차적인 응급처치를하며 본교 지정병원인 위생병원으로 하여금 본교생에게는 20%의 의료비할인혜택을 줄수있게 하고있다.

또한 여학생감실에서는 여학생들의 상담과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생활의 최전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지만 학생처와 학생간의 관계는 소원하기만 하다. 그 첫째 이유는 학생처의 딱딱한 분위기로서 이때문에 학생처를 찾았던 학생 다수가 다시찾기를 꺼리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본교 장학금 지원의 열악성, 학생징계문제 그리고 여학생감실의 실질적 업무마비 상태를 들수있다. 특히 본교 여학생의 비율은 전체학생수의 40%나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무관심으로인해 여학생감실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을 학내 민주화 사업중 학교측이 학생들과 부딪치게 되는 주요쟁점들인데 이를 학생처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학생처로 하여금 학생과 학교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동네북(?)과 같은 곤혹을 치루게 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학생과장은『중·고교때의 교무실과 학생처를 비슷한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리감을 비롯, 학생들의 학교측에 대한 제반 요구사항이 학생처와 결부되어 있어 관계가 소원한것 같다』면서『학생처를 기관의 프락치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으나 이것은 서로간의 대화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상담을 비롯하여 학생생활과 관계있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곳이 학생처라 생각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좁혀질것』이라고 말한다.

학생처가 직원들이 좀더 학생들을 친절히 대하고 학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학생처의 업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다.

학생처가 철저하게 학생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은 학생처나 학생모두에게 정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만이 학생처는 학생들의 손과 발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진 기자>

해태의 자화상

해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과, 식품부문에서 다져온 힘을 기반으로 이제는 전자, 무역, 유통, 서비스부문에서도 당당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읍니다.
보다 젊어진 모습으로,
보다 강해진 모습으로,
폭넓은 기업활동으로
해태는 힘차게 뻗어가고 있읍니다.

좋은 식품 개발로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데 앞장서 온 해태—
우리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이 땅의 제과산업을 이끌어 온 해태—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태의 역사는 바로 우리 제과산업의 역사입니다.
일찌기 비스켓, 아이스크림, 껌 등 과자류의 고급화에 앞장서온 해태의 제품 하나하나에는 소비자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있읍니다.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부라보콘, 변치않는 사랑을 받고있는 에이스크래커, 건강 보리음료 보리텐…등 해태가 만든 제품은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늘 대하는 좋은 제품이되고 있읍니다.
이제 냉동식품개발을 통해 미래의 식품문화를 열어가는데도 힘쓰고 있는 해태는 앞으로도 우수식품 개발로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데 기여해 갈 것입니다.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해태—
여가선용과 국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해태 타이거즈는 해태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투지와 정상의 팀웍으로 멋진플레이를 펼쳐나가는 해태 타이거즈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읍니다.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기업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일환으로 해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힘을 다해 안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 공급해 주는 해태—
해태는 현대경제의 혁명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유통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읍니다.
해태는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를 위해 쾌적한 쇼핑공간 코스코를 통한 보다 유익한 구매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업계 최초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 매장합리화를 실현, 신선한 농산물에서 공산품까지 5,000여종의 우수제품을 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는 코스코는 고객 여러분의 두터운 신뢰속에 급성장하고 있읍니다.

식품에서 철강, 플랜트, 전자제품까지 세계60여개국과 교역하는 해태—
해태 그룹의 수출입 창구 해태상사는 현재 6개 해외 지사망을 갖고 세계60여개국과 활발히 교역, 수출실적이 1억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해태상사는 미국, 일본을 비롯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태의 각종 식품류, 카 오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등을 비롯 국내 산업계의 농수산물, 중공업품, 플랜트를 수출하고 있읍니다.
특히 국내 산업계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원자재수입, 해외자원 개발 등에도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 최초로 컴팩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있는 해태—
해태는 전자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해태전자는 그동안 턴테이블과 컴팩트 디스크 부문에서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 최초로 첨단의 컴팩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까지 개발하게 되었읍니다.
해태의 의지와 저력이 첨단 테크놀러지 분야로도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해태

'88 대동제 총평

함께 어우러진「이문」과「왕산」

개교 34주년 기념「통일염원 대동제」와「왕산축전」이 지난 28일 (토)「이문·왕산 대동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할것이냐」「말것이냐」는 논란으로 시작 전부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이번 대동제는 여느 해와 달리 비교적 커다란 행사들을 통해 대중성확보에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특이할만 하다. 행사의 내용들이나 구성이 대부분 이미「대동제」를 마친 타대학에서 도용한것 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임진각 방문」과 같은 독자적인 행사가 내용성이나 구성에서 짜임새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매번 지적되어온「주동제」의 오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것이 흠이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불법주점의 성행과 주점들의 새벽2~3시까지의 심야 영업으로 인한 잦은 학생들의 마찰,「야바위」의 단속부재등이 전반적인 행사의분위기를 크게 저해했다고 볼수있다.

이외에도「통일염원문제풀이 한마당」이라든가「분단벽 무너뜨리기」등의 행사등이 무산되었다는 것이 오점으로 남는다. 이는 무리한 행사의「끼워넣기식 계획」「사전준비의 부족」「진행상의 미숙」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동제는「통일」에 대한 내용성 담보나, 그동안 누차 지적 되어온「재미」위주의 축제에서 탈피, 대중성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준비와 관리, 내용의 협상화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이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민속제

우리의 고유풍습에 대한 의미구현과 세계각국의 특성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알리고자하는 의도하에 마련되온 민속제는, 올해 역시 많은 학생들의 참여속에 진행되었으나 의미성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감을 보여 주었다.

민속제의 대표적인 행사인「전통혼례식(서울)」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해마다 똑같은「식」의 진행에서 오는 지루함과 고루함을 탈피, 서구풍을 가미시켜「하객」의 웃음을 자아내게했으나 민속제 특히, 우리고유의 전통혼례식의 의미를 삭감하고 단지, 즐거움을 주기위해 마련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용인) 등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없이 민속놀이 마당에 놀이기구를 마련해 놓는 것으로 그쳐 전시들의 효과도 못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는 준비측의 철저한 준비미흡과 홍보미흡으로 지적할수 있다. 또한 행사기간중 놀이기구의 파손과 손실에 대한 대안준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행사를 마쳤다.

문화제

이번 축제행사중 가장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을 받았던 부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성있는 행사가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계획성없는 준비로인해 행사가 뒤로 늦춰지거나 무산되는등매년 지적되던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노정시켰다.

「임진각 방문(서울)」은 8백여명의 많은 학생들의 참여하여 진행되어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는 대동단결의 한 마음이 되는 계기마련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수 있겠다.

그리고「모의가두점거시위(용인)」는 80년 미문화원점거 당시를 재현한 것으로 전경들과의 대치, 화염병투척등 현실감속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반전반핵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계기마련이 되었다. 그러나 화염병투척시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안전설치가 전무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문화제에서는 참석한 학생이 일부 정해진 학생들 뿐이고 그외의 학생들은 관람형식으로 구경만하는등 모두 참여할수 있도록 이끄는 대중화작업이 미진했던 것을 지적할수 있다.

학술제

이번 학술제는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부족, 획일화된 주제로 학생들에게좋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대표적이었던 행사로는「민족통일을 위한 대강연회 (서울)」「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술심포지움(용인)」으로 모두 현 분단상황과 올해 개최되는 올림픽을 고려, 일반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통일논의와 분단올림픽의 허구성등「통일」을 주제로한 심포였다.

학생들의 참여를 보면, 주최측과 현상황에 관심있는 학생 몇몇을 제외하고는 저조해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대중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프로그램이 부족한데다가, 강연회도 거의 주최측의 준비미흡으로 무산되는등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극히 적은 편이었다.

특정한 분야만을 다루는 학술행사가 아닌, 다양하고 전반적인 학문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학술행사마련은 예년과같이 이번 학술행사에서도 나타난 당면과제였다 말할수 있다.

대동제

길놀이 차전놀이 강강수월래 지신밟기 등으로 진행된 이번 대동제는 이문·왕산인이 한데 어우러져 치뤄진 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해마다 축제를 함에 있어서 계획차원에서만 그쳤던 이문·왕산인의 대동의 장 마련이 이번축제로인해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에걸친 행사로 짜임새 있게 진행되어 비교적 좋은반응을 얻었으나,「1만2천학우들이 하나되는 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각캠퍼스의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고 관람하는 학생이 더 많아 캠퍼스가 만나는 대동의장 마련은 명목상 이루어졌다하나 전외대인의 대동의 장 마련에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대동이라 함은 하나된 의지로서 이루어 진다는 것, 그리고 대학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대동제」는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내 동시대의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할때, 앞으로의「대동제」는 보다 신중한 준비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소규모로 진행되는 각 써클과 과의 행사를 거교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희자와 관객으로 구분되어지던 행사위주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지나친 풍자로 내용성마저 삭감시키는「재미」위주의 행사가 대중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의 의식이 소비·향락적「축제」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내용성을 찾는「대동제」가 될 때 오늘의 대학문화는 올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기획부>

▲「모의가두시위 (용인)」와「전통혼례식 (서울)」의 한장면…형식적 행사위주에서 탈피, 새로운 내용의 행사개발이 요구된다.

▲대동제기간중 성행한「야바위 (서울)」와「디스코장 (용인)」의 한 장면…소비·향락적「축제」분위기를 극복하는 건전한 문화풍토의 건설이 시급하다.

취재수첩

○…서울 캠퍼스의「임진각 방문」은 여타의 행사에 비해 가장 내실이 있는 행사로 손꼽히는데 통일을 염원하는 한 마음으로 지척의 북녘땅을 보고 돌아오는 학생들은 매우 아쉬운 표정.

멀리 임진각까지 따라오신「청량리 경찰서 형사」들도 눈에 띄여 눈살을 찌프리게 하기도.

○…용인캠퍼스 행사중 유일하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행사로는「아웃사이더의 공연」이었는데, 주최측의 앰프시설 미흡등으로 행사시작이 지연됐으나 공연시작만을 학수고대하는 학생들이 많아, 서양문명 선호사상이 팽배한 현 세태를 짐작케 해 주었다고. 특히 같은 시간에 치뤄진「전통혼례식」에는 동네어른을 제외하곤 몇몇 학생들 밖에 없어 격세지감을 보는듯 했다는 것이 후문.

○…이번 축제기간동안 성행했던 것들을 꼽는다면 주제를 제외하고, 연인들의 밀애제가 단연 선두에 들어 대학축제를 단체행사 참여 차원이 아닌, 철저한 개인의 축제(?)기간으로 만끽하려는 학생인들이 많아 미네르바 동산과 도서관뒤 휴게공간에 어느때보다도 풍기가 문란(?)했다고「사랑은 국경도 넘는다」는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축제기간에 있었던 연인들만의 축제는 도에 지나쳤다는게 축제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평.

○…축제때면 의례히 각종노점상이 판을 치기 마련인데 용인캠퍼스의 경우 디스코장이 두곳에나 설치돼 학생들의 발길을끌었다고. 두곳에나 마련되어서인지 서로 피켓을 들고 다니는등「손님끌기」경쟁이붙어 유흥가를 방불케해. 더군다나 놀라운것은 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보다 하루 디스코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웃돌아 퇴폐적·향락적 소비행각에 씁쓸해하는 표정이 다수.

○…풍기문란을 단속키위한 용인캠퍼스의 포졸단의 발족이 눈길을 끌었는데.

몇명의 포졸나으리들이 권력을 빙자한 심한어투와 행동으로 주점장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짜술 얻어먹기에 바빠 자기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반면, 예년에 비해 지독한 주가들이 줄어들어 대체로 조용히 축제가 끝나 불행중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용인캠퍼스의 행사중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대접과 길놀이등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마을잔치」행사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있었는데. 1백여명이 훨씬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행사가 잘 진행되는가 싶었으나 국수등 몇가지 음식과 수건등 기념품만을 나눠드리고는 그냥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짜놓지않고 그저 초대만 해놓은 주최측에 대해 철저한 배은망덕?) 이라는 지적이 대부분.

서울지역 12개대「민주동우회」

6월19일 (일)「6월대동제」개최

서울지역 12개대학에 구성돼 있는「민주동우회」는 6월19일 (일) 오후 2시 6월항쟁 1주년기념「민주동우 6월대동제」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개최한다.

각대학 민주동우회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동우회운동을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대동제는△1부 6월항쟁 1주년 기념식△2부 문화제△3부 대동놀이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면극연구회」

「잠들지않는남도」공연

서울캠퍼스「가면극연구회」는 지난5월27일 (금) 오후4시 통일광장 (구 삼민광장) 에서 마당극「잠들지 않는남도」를 공연했다.

4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연은 제주도 4.3항쟁을 다룬 것으로 해방이후 미군정하에서 도민들의 자치기구건설노력과 미국의 지배에반대한 도민들의 항쟁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모두 다섯마당으로 구성된 이번 마당극은 제주도 4.3항쟁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목적으로 기획공연됐다.

비둘기체전 열려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5월24일 (화) 부터 28일 (토) 까지 비둘기체전을 개최했다.

야간강좌 11개과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체전에는 축구등 8개종목이 치뤄져 종합우승은 러시아어과가 차지했다.

각종목 우승과는 다음같 같다.

△축구 : 러시아어△배구 : 서반아어△농구 : 러시아어△여자발야구 : 러시아어△족구 : 일어△탁구 : 영어 △씨름 : 무역

움직임

< 서울캠퍼스 >

▲대원외고 : 5월31일 (화) 상징탑 오후5시 회비 : 5천원 (1기) 2천원 (2기)

▲구로고 : 6월1일 (수) 시계탑 오후5시 회비 : 3천원

▲성동고 : 6월3일 (금) 상징탑 오후5시 회비 : 1천원

< 용인캠퍼스 >

▲금옥고 : 5월31일 (화) 학생회관식당 오후5시30분

▲선일고 : 5월31일 (화) 어문학관휴게실 오후5시40분

< 영화상영안내 >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2202호)

▲5월31일 (화) : 오후2시「플래툰(Platoon)」오후5시「양철북」▲6월1일 (수) : 오후2시「양철북」오후5시「플래툰(Platoon)」▲6월2일 (목) : 오후2시「플래툰(Platoon)」오후5시「양철북」▲6월3일 (금) : 오후2시「양철북」오후6시「플래툰(Platoon)」

< 타대학행사 >

▲서울여대 : 제4회「입술의 열매」오후7시 장소 : 소강당 주최 : 서울여대 성가대.

크로니클

남남북녀(南男北女)

○…타대학에 비해 장수(長壽)를 누리고 있는「북한여성 생활」에 대한 대자보가 흡산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의 한 관리나으리「좌경·용공학생 척결을 위한 전원 검거령」을 선포(?) 하는등, 북한여성 생활을 공개한 대자보에 대해 초동 제거 작업을 나서「보통사람」들의 논리를 다시 드러냈다고.

오염된 한민족 한동포의 생활을 바로알자는 모습을 아무리 가리고 덮으려 한다해도「남남북녀(南男北女)」라는 옛명언까지 지울 수는 없을걸.

○…대동제 기간중 때아닌「미아찾기」운동이 벌어져 이문벌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야간강좌의「비둘기 체전」이 공교롭게도 대동제 기간과 맞물려 응원단은 물론, 출전 선수의 부족현상까지 일어나「술독」에 빠진 흡산, 대동제에 참여하고있는 과흡산들을 찾아 동분서주 했던것.

「큰행사」에 가려진「작은행사」를 도외시하는 일부흡산들에게도문제는 있다하겠지만 집안행사기간 하나 제대로 통일시키지 못하는 지도부역시 걱정돼, 진정「통일」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지.

○…대동 한마당이 끝나고 난 이문벌에 예년에 볼수 없던 괴이한(?) 일이 일어나 크로니클자 알아본 즉.

한편에서는 모과 흡산들이 동문체육대회에 앞서 술냄새로 얼룩진 이문벌 운동장을 교수님들까지 합세하여 청소를 벌여 나갔고, 한편에서는 다른과 흡산들 체육대회를 마치고 그냥 자리를 떠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것.

「학교도 깨끗 흡산도 깨끗」이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고 교정은 쓰레기통으로, 쓰레기통은 장식용으로 생각하는 흡산들 대오각성 해야할터.

○…이문벌 학생회관「여흡산 休게실」의 이름을「남흡산 休게실」로 명칭 이전신고를 해야할 판.

얼마전 새롭게 마련된「休게실」에 정작 여흡산들은 보이질 않고, 대신 休게실을 장악한 남흡산들이 상주하는가하면 소파등의 비품이 각 써클실로「공간이동」을 해「여흡산 休게실」은 사실상 사용불가능이라고.

무분별한 침입 (?) 을 감행했던 남 흡산들, 앞으로 성별 확인 작업을 단행하기 전에 알아서 대처하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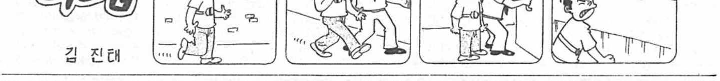
○…민주화를 갈망하는 애국청년의 불길이 생(生)을 다마하고 사(死)를 두려워하지않는 경지에 까지 타오르고 있어.

며칠전 통일을 부르짖으며 산화한 고 조××열사에이어 또다시 최××열사가 민주화를 위한 불길을 당겨 이땅에 꺼지지 않는 봉화를 높이 올렸던 것.

오늘을 살아가는 흡산제위, 세상이 삶을 슬프게 할지라도 앞서간 열사앞에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나가길 크로니클자 다시한번 당부하는 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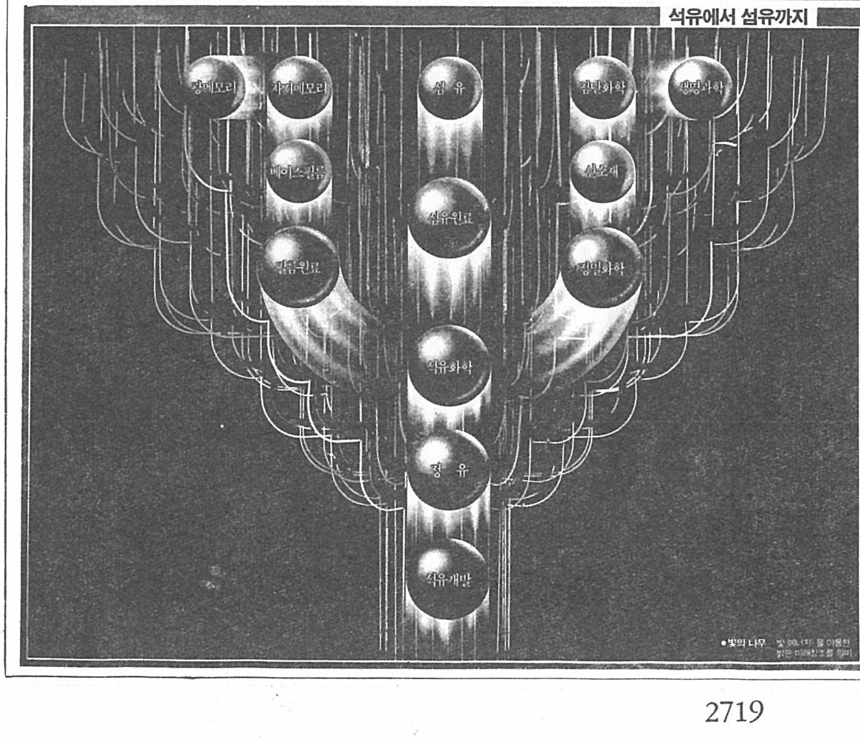
앞서간 열사앞에

연재만화 〈9〉


외고집
오늘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분들을 면회하러 가야겠다…
따라 오시죠…
우리가 추천하는 참된 양심수 한분을 보여 드리죠
면회
소개합니다「새마을」이라고 합니다!

김진태

석유에서 섬유까지



“석유에서 섬유까지”
선경은 전문화된 산업의 수직계열화체계를 갖추고 있읍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듯
기업도 바탕이 튼튼해야 안정·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읍니다.

선경은 “석유에서 섬유까지” 산업의 완전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추고 종합무역분야, 종합에너지·종합석유화학
분야, 첨단섬유·정밀화학·생명과학분야, 자기 및
광메모리분야에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읍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경은 다가올 2천년대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을 목표로 석유 개발에서부터 첨단화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미래에 도전해 갈 것입니다.

SUNKYONG
선경그룹

(주)선경·(주)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틱·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주)홍국상사·유공해운

문학속에 투영된 군부와 군생활

시에서는 군부의 파행성이, 소설에서는 군대관련 작품이 문학운동에 일조

문화시론

백 진 기

〈문학 평론가〉

Ⅰ. 들어가는말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남주, 「학살·3」중에서, 미국에 의한 대(對)남한지배의 가장 결정적인 무기인 군부는 제2차 제국주의전쟁 이후 변모된 제국주의 체제의 신식민지적 불모의 그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군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민족해방운동에서의 또하나의 주요과제임을 각인시킨다. 현하의 한반도 상황은 막대한 군사비를 국민에게 호전적으로 전가시킴으로써 국민경제 전체가 준(準)전쟁상태에 복무하고 있으며, 「총성없는 전쟁상황」이라는 관용구에서 실감되듯이 국민 전체가 제국주의에 의한 대리전쟁에 동원될 잠재적 상비군으로 전락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과정으로서의 한반도에 대한 핵기지화는 우리 민족을 절대절명의 벼랑끝으로 내모는 엄청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요구받고 있는 인식의 한전환점은 「군부의 본질적 규정성을 철저하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에서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저간에 행해졌던 군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수준은 세계적 차원에서 제국주의적 규정성과 동시적으로 파악하지않고 일국의 내재적 관점이라는 분절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럴 때 신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대상과 동력은 제대로 구려질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점의 각인과 더불어 80년대 하반기들어 군부와 군생활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이 출간되고 있는 점은 문학의 발전입장에서 볼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볼수있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군부에 대한 현단계 민족·민중문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내용을집약시켜 글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Ⅱ. 군부를 소재로 한 시작품

시의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민족·민중문학의 범주에 해당되는 시작품 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군부에 대한 일정한 자기발언이 들어있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군부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 상당히 미흡한 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가 이 대목에서 김남주의 시작품을 주목하고자 하는 이면엔 각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른바 「남민전」으로 연루되어 여지껏 식민지조국의 녹슨 창살에 옥재어 있는 김남주는 현단계 우리 문학이 쟁취해야 하는 여러 과제에 대해 눈부신 천착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는 또한 근·현대사의 민족해방운동을 현재의 변혁운동의 입장에 올곧게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제국주의—군부—분단구조의 음모적 연결고리를 명쾌하게 짚어 내고 있다.

그는 『식민지사회에서는/단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각주) 고 단언한 다음, 그것이 우리의 민중현실과 민족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태되고 있는가에 대해 각개격파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도 결코 총체적 시각을 놓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군이 있으면/삼팔선이 든든하지요/삼팔선이든든하면/부자들 배가 든든하지요』(쓰다만 시)에서 검증되듯이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모순의 극단화된 변형형태인 분단현실을 흡뜬 눈으로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국주의—군부—분단구조에 대한 그의 형상적 현실인식은 「소시민적 민족문학」의 차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시를보면 확연히 알수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미팔군병사의 군화에도 있고(……)죄 안짓고 혼줄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일하면/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졸라맨 허리에도 있고/제 노동을 팔아/한푼의 인간이고자 일어나면/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구부러진 허리에도 있다』—「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것이 아니다」중에서

이처럼 제국주의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분단현실에 대해 강력한 「당파성」을 무기로 접근해 들어가는 시각이야말로 주변에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민중적 민족문학」의 구체적 성과라 할 수 있겠다.

Ⅲ. 군생활을 소재로한 소설작품

소설문학의 경우엔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 주제에 밀착된 작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전의 소설에서 이 주제에 대한 소재주의적 차원의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군부」는 커녕 「군대문제」의 객관성 조차 전혀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근래에 이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 작품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제철의「우울한 귀대」, 유시민의「달」, 정도상의「친구는 멀리 갔어도」「굿바이 맥도날드」, 김인숙의 「79~80」등을 꼽을 수 있겠다.

「우울한 귀대」는 80년 5·18 군사쿠데타 직후 군장비의 물품을 구하고자 서울에 올라온 「윤병장」이란 인물이 겪는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는 계엄군에게도, 학생에게도 인간적 봉변을 당한다. 그러나 상황의 인과성을 상실함으로써 극적 구성에는 실패하고 있다.

「달」과 「친구는 멀리 갔어도」는 매우흡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군대에서의 「의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달」은 강집당한 운동권학생과 일반사병과의 관계를 응축시키고 있음에 비해, 「친구는…」은 구속→운동권 학생의 강집→오발사고→보안대에서의 살인적 고문→강제적인 화원프락치→의문의 죽음이라는 전과정을 숨가쁘게 형상화해 내고 있다. 특히 이 이 두 작품 모두 군대생활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매판세력들이 박아논 반공이데올로기를 적나라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집중된 형상적 치열성의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친구는…」이 보다 리얼리스틱한 구체성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굿바이 맥도날드」는 조금은 특이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미군 병영 내의 카츄샤 문제를 조명하면서 미국병사에 대한 한국병사의 굴욕적인 불평등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제국주의—군부의 관계양상을 온전하게 형상화시키기에 소재선택의 차원에서 적잖은 무리가 없는 바도 아니지만, 소재의 지평확대란 측면에서 주목해야될 작품임에는 틀림 없다.

긴박한 정치적 변혁기에 군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가를 여러 계급과의 상호유기적인 연결속에서 조망한작품이 「79~80」이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변혁기에 있어서 군부의 반동적 계급성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다. 현 군부는 결코 민족의 자위를 담보하는 민족의 군대가 근원적으로 될 수 없음을 이소설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이외에도 조금은 다른 문제접근의 방식이지만 제국주의—군부의 관계를 적출하기 위해선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에 제국주의세력의 용병자격으로 참여한 한국군의 모습을 다룬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인간의 새벽」이원규의 「훈장과 굴레」이상문의 「황색인」황석영의 「무기의그늘」등도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국주의—군부의 관계와 군대에서의 반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우리 문학운동의 창작실천적 성과를 거칠게 나마 일별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현재의 문학운동은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목적의식적 창작실천을 시급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많은작품이 기존의 작품을 승화시켜 차후에 새로운 문학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간소개

백정 Ⅰ

—정동주 지음

이 책은 작가 정동주 본인이 쓴 서사시 「두레꾼의 이야기」를 소설로 형상화시킨 작품으로 조선말 농민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진주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861년 진주 근교의 농촌을 배경으로 민란이 임태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부 「이상한 노래」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백정들의 삶과 관리들의 가혹한 탄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으며 2부 「봉화」에서는 사회구조의 오랜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거사계획을 세우는 백정과 농민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열린책들펴냄값3천5백원>

독일관념철학과변증법

—강대석 지음

이책은 관념론, 변증법, 독일관념론의 역사적배경과 칸트, 피히테, 헤겔등의 철학적 핵심문제, 변증법의 성격과 발전적 면모를 살피고 있다.

프랑스혁명과 자연과학의 발달에 대한 독일적 반응으로 잉태된 「독일 관념론과 변증법」의 관념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계승을 통해 현사회에 대한 철학적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한길사펴냄 값3천8백원>

국제무역환경론

—박필수 지음

이책은 현대 국제무역환경변화와 각국가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마찰의 배경과 해결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래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보호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수입규제, 수입개방압력등의무역문제를 환경론적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법문사펴냄 값6천원>

문화단신

오장군의 발톱

—극단 「미추」 공연

박조열작 「오장군의 발톱」이 오는 6월3일(금)부터 9일(목)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오장군의 발톱은 순박한 농부 「오장군」이 행정착오로 발부된 징집영장을 받고 입대해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작원이 되어 나라에 큰 공을 세우나 적측에 의해 사살된다는 내용이다. 이작품은 조직사회속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인간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문의및 예매처: 극단 「미추」 743—7828 ▲공연시간: 매일 오후 4:30, 7:30 ▲관람료: 2천원

문예산책

어머니 웃음속에 그날은 오고

◇극단 여인극장의 「어머니」를 보고서

『우리는 불효자가 아냐. 다만 세상이 어지러워 효도하는 일과 바르게 사는 일이 엇갈려 있을 뿐이야』

극단 「여인극장」이 공연한 「어머니」는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된 아들과 어머니와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지금까지 한정된 소재의 고루함을 면치못한 연극계에 현실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촌에서 어장일과 읍내의 세차일을 하는 어머니와 정신병자 아버지를 가진 광수가 대학에 입학하며 극이 시작된다. 그러나 광수는 학생운동을 하던중 투옥되고 어머니는 크게 실망하게 된다.

이런와중에 마을 뒷산너머에 생긴 공장의 폐수로 어장이 피해를 입게되자 어장의 보상문제로 서주사와 이웃의 갈등은 첨예화되게된다. 어머니는감옥에있는 아들 광수의 장래를 위해 일시적인 보상책밖에 되지 않는 서주사의 의견에 따른다.

그러던 중 광수어머니는 아들의 재판에 참석해 아들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사회적 모순과 이의 해결을 위한 아들의 노력을 깨닫고 마을에서 벌어지고있는 어장피해문제해결을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싸운다는 내용으로 극은 마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서울로 유학(?)온 아들과 어머니의 일상적인 고민을 다루었다는평범한 내용속에서도 진솔한 감정이 고뇌일수 있었던 것은 연극속의 연행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연행인과 관객이 서로가 서로를 투영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장소를무대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최대한도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극에서는 갈등·대립관계가 자주등장하는데 광수어머니와 서주사(선주(船主))와의 관계와 서주사아들과 광수와의 대립이 그것이다.

계속되는 대립·갈등 그리고 복선이 연극에서의 백미라 할 수있지만 이같은 대립관계가 확연히 표시되지 않은것은 극이 지닌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광수어머니가 서주사의 품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립관계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아 극적 승화부분의 미흡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또한 극의 클라이막스인 광수의 재판과정에서 어머니의 의식변화가 연극이 가지는 시각적 제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급격한 변화를 보여 극적인 의미를 살리지 못한 느낌이 든다.

소재의 참신성속에서도 갈등부각의 미흡으로 주제의식 반감

이러한 문제점속에서도 이번 연극이 남다른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시대가 안고있는 우리자신들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극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인만큼 사회적 모순과 민중적 삶을 대변하고자 하는 연극계의 계속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문정완기자>

조국의 허리앞에서

녹슨철조망, 날카로운 총칼로는 우리의 통일의지를 막을수없어

수필

조 미 령

〈야간·노어 2〉

며칠전 대동제 행사중의 하나로 임진각에 간일이 있다.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발길을 옮겼으나 임진각의 모습과 멀리 보이는 철책선 너머의 북한을 계절의 여왕이라는 화려한 오월 뒤에 가리워진 피빛 오월 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분명 한겨레, 한 민족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곳에 간간이 미군만이 눈에 띄는 그곳은 철책선 건너편에도 우리의 한 형제가사는 곳임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아닌 한낱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지에 불과했다.

마치 어느 나라의 국경선을 연상시키는듯한 그곳에서 우리는 해마다 유월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치러야 했던 그 무엇이 생각났다.

바로 6·25에 대한 글짓기 시간. 그 순간만 되면 우리 모두는 알수 없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하여 「극악무도」「호시 탐탐」등의 단어를 사용해 되도록이면 그들의 행위를 잔인하고 과장되게 표현해야 한다는 당위감에 젖곤 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낯익은 노래조차 부르기를 주저해야 했다.

불연듯 떠오르는 이같은 생각은 바로 조국의 허리앞에서의 관조적 생각은 아닌듯 싶다. 유치원 아동들의 목적없이 즐거운 얼굴, 북쪽의 친척을 가까이서 나마 보겠다는 늙은 할머니의 상기된 얼굴, 내옆에 이름모를 학생의 푹념, 이 모두가 복합되어 나온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휴게소 옆에 있는 「해리·트루만」의 동상이 왠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왜 이곳에 다른나라 대통령의 동상이 서야만 하는가!」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동상속에는 우리의 염원을 짓누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조국의 통일을 억누르는 듯한 그 동상은 결코 기념사진 촬영소가 될수 없고 진정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할 곳이다. 또한 우리에게 면역화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외세와 분단의 원흉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려야 할곳도 바로 이곳이다.

얼마후에 새롭게 맞이하는 유월은 결코 지난날의 유월과 같아서는 안될 것이며 이제 더이상 후손들에게까지 민족의 한(恨)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쪽 하늘에 평화를」이라 새겨진 돌덩이가 허리잘린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멍에로 작용하였다. 우리의 현실이 「북쪽」이라는 말보다는 「한반도」라는 말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전 반핵가」가 울리우는 임진각의 조그만 사건은통일의그날을 밝히는계기가 될것이다.

학교에서 낯익은 여러 구호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진정 우리의 동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자! 두동강난 조국의 허리를 부둥켜 안고, 앞서간 동지의 시신을 덮고」

우리말의 쓰임새 (142) 고비

<퇴원은 놀라는 급한 고비를 넘겼으나 이제는 아마 길게 걸리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벌써부터…. 염상섭의 단편소설 「임종」 중에서>

고비는 여러가지 뜻이 있으나 소설에 맞는것은 다음과 같다. 사물의 가장 긴요한 기회나 혹은 막다른 절정을 의미한다.

죽을「고비」를 넘겼다와 같이 쓰인다.

진리·평화·창조

國際化 시대에 앞서가는 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